

文대통령 "건강보험보장 더욱 강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덕암칼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건강보험(건보) 보장성 강화로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고...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진료 불렀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러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건보의 보장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년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앞뒤 안 맞는 방역지침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엔 급급한 정부 차원의 각종 이벤트성 정책이 지속적인 항변과 이익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대구 집단 발병과 신천지 교회사건, 중국입국자 거부에 대한 당위성 등 한번씩 고비가 생길 때마다 흔한 말로 대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형국 아니냐며 이익을 제기했고 특히 재난지원금은 이런식으로 풀게 아니라 정작 급한 단전·단수 가구와 전국 행정복지센터 단위의 위기가정 구제에 우선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고 설마하던 2,000명대까지 확산되자 방역시스템에 대한 전면 검토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며칠 남지 않은 대규모 집회가 새로운 분수령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집단 감염의 주범이 군중집회로 몰릴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다.

이날 행사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안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4주년을 기념해 이날 행사를 주재하면서 그간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년전 건보 보장성 강화로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

줄어드릴 예정이다"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엔 지역 중증저렴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물론 턱도 없이 안 먹히던 의견들은 최근 대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조심스레 꺼내기 시작한다. 이인제 전 의원도 코로나 방역의 허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고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우한 바이러스인 중국발 입국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며 뒷북을 쳤다. 이미 의사협회가 수 차례 강조할 뻔 뒤편다가 새삼스레 자신의 대안인양 대외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4단계로 아무리 강조해도 수습되지 않는 현실속에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적 방역이라고 생각한 사례를 들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9년 12월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나 의료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과학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4차 대우행으로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섰고,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백신 접종률이 최하위라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 맞아 치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도 방관한 걸로 되는데 그래도 무슨 할말이 있겠나. 지금 상황은 이미 재난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재난이 아니라 그로 인한 호흡곤란을 발인 상황이 재난이다. 거리두기 4단계 돌입으로 차단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더 확산 된다면 불을 산소로 막아 끌게 아니라 물을 퍼붓다가 더 타지 않게 탄탄 부분이라도 피하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이는 다 죽는줄 짐작하면서 그 자리 가만있으라고 선내 방송한 세월호 참사와 뭐가 다를까. 이미 자영업자나 대면으로 먹고 사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은 이래죽나 저래죽나 마찬가지로 사는 이판사판 형국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조차 집단 면역은 상상적 개념이라 넘을 수 없는 문턱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적으로 3~400명대를 걱정하던 시절은 불과 1주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점차 포기단계에 이르렀

이 같은 추세라면 3,000명 아니 5,000명이나 1만 명까지 늘어날지 모르니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다려 봤다가, 4단계로 조여 봤다가 안되는 걸 어찌냐고 한다면 그런 대책 누군들 못 세울까. 거액의 방역비용과 국민들의 협조가 바닥이 나도록 굶어오라 봤다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한다. 방역당국이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관했다면 직무무기라 볼 수 있다. 삼복더위에 의료진이 무순죄가 있으며 시키는대로 영업장 문 닫은 자영업자들이 무순죄가 있을까. 얼마 전 항공도시 부산도 거리두기 4단계 발령이 내려졌다. 전국이 모두 4단계가 아니라 동작 그만 상태가 와서 코로나19 확산이 중단 내지 소멸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끌게 아니라 작년 2월부터 강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당초 국민이 70%만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백신을 맞아도 같은 속도로 확산되면서 안타깝게 빛나갔고 이제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각종 바이러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추정이다. 백신에 대한 신뢰가 점차 추락하고 있다. 지금은 안 맞는 것 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위안 정도다. 이제 여론은 섣다른 지지 방향으로 선화하고 있다. 어차피 델타 변이 등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하는 시점에 지금처럼 무슨 짓인들 못하랴 하는 심경이다. 심지어 포기하라고 독감처럼 안고 살자는 의견도 있다. 모든 방역조치에 허구적인 부분과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한 두 곳도 아니지만 이제는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의심도 상황 판단이 어중간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위중한 상태에서는 인공호흡기고 뭐고 가릴게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전쟁보다 더 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국민은 무조건 믿고 따라 주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어설론 추정이나 시비도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 대신 목표를 정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시간이 급하다. 독감과 비교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10배에 이르며 독감과 달리 현재는 치료제와 백신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덕암/김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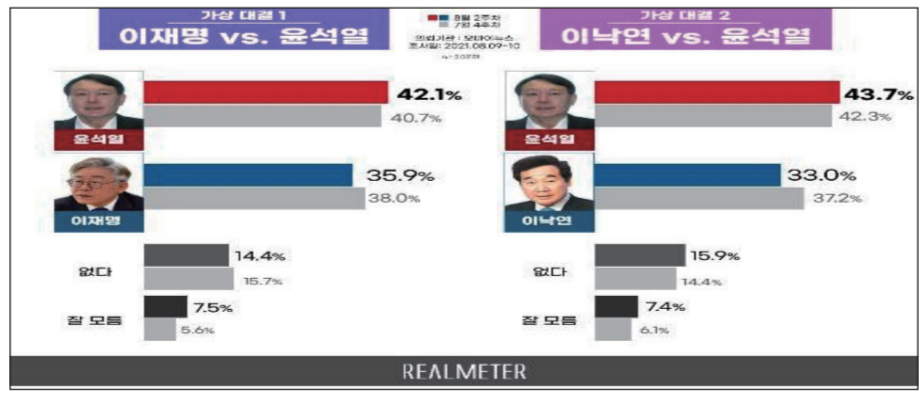
김 총리 "방역 강화 논의보다 현장 실행력 확보가 우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아직은 방역조치의 강화나 완화를 논하기보다, 현장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보다 강력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제는 국민의 삶도 살피야 한다는 목소리

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거리두기를 강화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해수욕장을 비롯한 휴가지에서는 크고 작은 방역수칙 위반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방역단계를 조정하거나 해수욕장을 폐쇄하는 등 어려운 결단을 내린 지역도 있고, 델타 변이에 대응하여 역학조사 체계를 정비한 곳도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주말, 미국 정부가 공여한 안센백신 4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백신이, 하루라도 일찍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대결 "윤석열, 이재명·이낙연에 오차 밖 우세"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대선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2.1%, 이 지사는 35.9%로 각각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직전인 지난 달 26~27일 조사의 2.7%포인트에서 6.2%포인트로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도 43.7%대 33.0%로 우세했다. 차기 대권지도자 조사에선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치열한 선두 경쟁

을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이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내린 26.3%로 1위를 지켰고, 이 지사는 0.4%포인트 오른 25.9%로 뒤를 이었다. 이 전 대표는 3.1%포인트 하락한 12.9%를 기록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최재현 전 감사원장(6.1%),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5.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9%), 유승민 전 의원(2.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3%), 정세균 전 국무총리(2.1%),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2.0%)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재은/기자

남원시, 달의 궁전 '廣寒樓 달빛야행' 이 시작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마곡지구 지식산업센터 편법사용 묵인하는 서울시는 각성해야”

김 의원, 마곡지구 개발·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11일 서울시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마곡단지관리팀장·마곡단지지원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마곡지구 지식산업센터의 편법사용을 서울시가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곡 R&D센터는 차세대 지식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어려운 기업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며, 정보통신업, 바이오산업, 녹색산업, 나노산업 관련 중소·벤처·창업기업이 입주대상이다.

최근 마곡 R&D센터에 입주대상 외 업종 기업들이 입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편법 사용을 허용할 경우 마곡산업단지 내 세우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첨단기술 융합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 조성이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김 의원은 “마곡 R&D센터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계획된 곳이기 때문에 조성방향에 부합하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마곡단지는 잦은 계획변경과 지지부진한 개발속도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마곡지구 개발·조성에 대하여 서울시가 보이는 안일한 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마곡 R&D센터가 초기 목표와 내용대로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서구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마곡지구개발이 상당히 오

랜 시간 지체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서울시는 마곡지구의 조속한 개발 및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

최광수기자

인천시의회, 동일방직의 노동·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활성화 방안 토론회

동일방직의 노동 역사 가치 존중 필요

인천광역시의회가 노동·유산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동일방직 부지의 보존 및 활용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동일방직 보존을 위한 모임’과 함께 ‘동일방직의 노동·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산업 역사와 여성, 노동운동사의 상징인 동구 만석동 일원의 동일방직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근대 건축자산으로서 가치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민우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과 인천연구원 최영화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동일방직 주변의 구역 관리와 지역특화방안’,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동일방직 주변의 산업유산 의의와 국내·외 역사 환경 지구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한 남지현 연구위원은 “동일방직은 경인선 주변의 근대적 종합단지이자, 한국 노동운동사의 현장으로 산업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동일방직 주변 이해자와 연계된 내항특구 매니지먼트를 운영해 역사적 경관과 노동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영화 연구위원은 “동일방직을 산업역사와 노동운동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가치를 발굴·활용하기 위해 인천 노동산업박물관 등 문화재생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나 실무TF를 운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조성혜 의원



은 “동일방직의 산업 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재생, 건축, 아카이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동일방직 부지가 인천이 가진 근현대 건축물과 산업유산 가치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필요하기에 인천시가 주체가 돼 TF를 구성했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동일방직이 위치한 동구 지역구를 둔 남궁형 의원은 “동일방직 부지는 여성노동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큰 산업문화유산인 만큼 보존과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동구 등 원도심지역에 위치한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유산들에 대한 보존을 위한 협업모델을 찾아 많은 문화 유산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방직은 지난 2014년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2017년 공장을 폐쇄했고, 시는 ‘도시관리계획(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올해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했다.

김종남기자

더민초 초청 대선후보 비전토크콘서트 내일 스타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개별초청 비전 토크콘서트
초선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8/13(금) 박용진
“우리는 비전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말한다”
 2021년 8월 13일(금) 저녁 8시~9시 10분
 YouTube 유튜브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 개인 유튜브, 유명 유튜브 등)
 새 최민초 상공회대 교수0083, YTN, 종편 등 다수 출연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민주당 공식유튜브 채널 벨리민주 통해 공개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원팀 민주당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민초는 6인 토론회 중심의 벗어나 후보자의 삶과 정치 역량, 정책공약과 미래비전 중심의 후보 진면모 들여다보기와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 사전 신청 및 추천과정을 통해 3인의 질의위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민 공개 질의 형식의 무작위 질문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박용진 후보를 첫 주자로 시작되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벨리민주와 함께 민주당 초선의원 50여 명의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 송출될 예정이며 후보별로 선정한 파워유튜버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세종시 광역의원 12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총17명 중 12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한 지지를 전격 선언했다.

김원식, 노종용, 박성수, 손현욱, 안찬영, 유철규, 이영세, 이윤희, 이태환, 이순열, 임채성, 차성호의원은 12일 세종시청 내 국회 세종의사당 홍보관 앞 “이재명 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적임자이자,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적극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을 한 시의원 모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부터 시작해 경기도지사까지 일 잘하는 단체장으로 인정받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온 인물”이라며 “국가의 성장을 위해 국토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핵심요소라고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의 신념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여 지역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뜻을 함께 한다”며 “이 후보는 양극화된 사회에서 세대 간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여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인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당내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 드린다”며 “우리 세종시의 간절한 염원인 행정수도 완성을 꼭 이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대해 꾸준히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대전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은 경제중심지로 만들고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예전부터 찬성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옮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영등포구, '영등포마을대학' 개강

여의, 당산·양평캠퍼스 첫선



영등포구가 올 하반기 권역별 마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강좌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대학은 주민들의 배움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영등포 대표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마을대학 캠퍼스'는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북카페 등의 유휴공간을 권역별 캠퍼스로 조성하고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함께 성장하는 마을단위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등포구의 5개 권역별 마을대학 중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캠퍼스는 여의도와 당산-양평캠퍼스로, 지역별 풍부한 수반자원과 시설 인프라를 심분 활용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여의도캠퍼스에서는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16회차의 강의를 진행한다.

여의동 주민센터와 한강 셋강공원 등 실내·외 공간을 활용해 ▲도시를 식히는 도시 녹화, ▲도시에서 사는 나무들, ▲지구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습지와 새들의 친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준비한다.

당산-양평캠퍼스에서는 '취미'

를 주제로, 9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향을 나누다, 책&Talk ▲취향을 공유하다, 와인&Talk ▲취향을 저격하다, 연극&Talk 총 3개의 클래스를 운영한다.

개인 선호에 따라 한 가지 클래스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주 1회,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여의도캠퍼스 프로그램은 8월 25일까지 총 20명의 신청자를 모집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나 재료비 1만 원은 별도 부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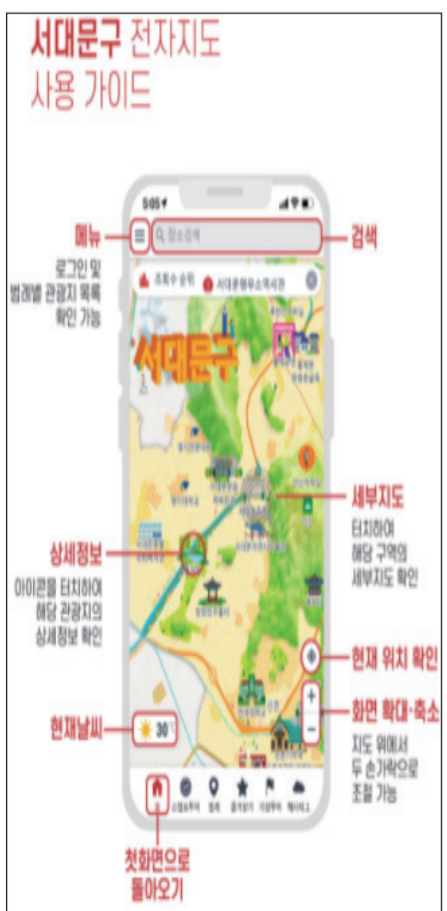
당산-양평캠퍼스의 프로그램은 8월 31일까지 각 강좌당 10명 이내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나 프로그램별로 소정의 재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강좌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될 예정으로, 온라인(ZOOM)으로 전환해 운영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마을대학 캠퍼스"의 운영으로, 개인별 취향과 특기를 살린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구축' 문화·관광·생활 정보 한눈에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도는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서대문 전자지도'로 검색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QR코드를 스캔해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곳에는 서대문구의 명소, 문화공간, 공연 및 체육시설, 박물관, 도서관, 공방, 갤러리, 미래유산, 문화재, 쇼핑공간, 모범음식점, 주차장, 숙박 시설 등이 망라돼 있다.

주요 시설들이 특성을 잘 디자인한 아이콘으로 표시돼 가독성과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인다.

또한 GPS 연동으로 대중교통 검색과 길 찾기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언어 설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도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전자지도는 각종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스텝프 투어'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서대문독립민주축제의 일환으로 이달 14일 시작되는 '독립민주랜선투어'를 이 지도에 접속해 즐길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전자지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서대문구의 매력적인 문화 관광 콘텐츠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접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마포구, 미래를 여는 청소년 정책포럼 '미래 열음' 개최

마포구가 마포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 정책포럼 '미래 열음'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스타트를 끊은 후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정책포럼'은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진희) 주관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정책포럼은 마포구 청소년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청소년 정책 운영 및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장이다.

올해는 '마포구 청소년 현재와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청소년 간 자유롭게 소통하며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이다.

정책포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줌(zoom)은 사전 신청한 100명만 참여 가능하다.

포럼 개최에 앞서 구는 지난 5월 2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지역 내 청소년 3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는 '2021 마포구 청소년 요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영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외활동/봉사/진로/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소년의 현실태를 논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발전 방향 등을 제안하게 된다.

14일 개최되는 포럼에는 마포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대표위원도 참석하는 만큼, 구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도 함께 나누는 우리마포 교육 토론회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발제자로 참여하는 김재원(18)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깊이 있는 정책 포럼을 위해 한 달이 넘게 청소년 정책을 공부하고 토의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이 함께 참



여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구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시 해당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혁신교육지구 운영에도 관련 사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구의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우이천내 대동천입구 악취 저감 가림막 설치 현장 방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8월 9일, 우이천내 악취저감 가림막 설치 현장을 방

문했다. 유인애 의원이 방문한 현장은 수유동 697-3번지 앞 우이천과 대동

민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천 합류지점의 방류구가 있는 곳으로 최근 악취저감 가림막이 설치된 현장이다.

해당 장소는 주변에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고 우이천 산책로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나 우이천 합류지점의 특성상 악취와 안전사고 문제가 자주 제기됐다. 이에 유인애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강북구청 집행부에 악취와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지난 7월 말 공사를 통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악취

저감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날 해당 현장을 방문한 유인애 의원은 관계자와 함께 설치된 가림막을 직접 확인하고 악취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방문을 마치고 유인애 의원은 "악취저감 가림막 설치로 많은 주민의 실생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우리 강북구 관내 주민의 불편사항과 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니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달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같이보고, 같이 만드는, 가치있는 주민홍보"



금천구는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코로나시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 관심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정 홍보영상 제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과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만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홍보영상은 '온라인 골목회의' 형식으로 △주민자치 마을사업 주요활동 소개 △이달의 시책 및 신규사업 홍보 △주민 편의사업 정보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정 주요내용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아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시

흥1동에서 제작 운영 중인 폐기물 배출관련 시리즈도 포함될 예정이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제작된 영상은 주민자치회, 통장회의 등 주민단체 회의 시 상영하고,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영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온라인 소통창구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제작하는 홍보영상이 지역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관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소통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인천서부소방서, 인천지방산업단지 소방안전 컨설팅 실시



인천서부소방서는 11일 오후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및 안전컨설팅을 통하여 맞춤형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서구 가좌동 소재의 인천지방산업단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산업단지는 부지면적만 113만㎡로 대형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493개소의 업체와 6500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입주해 화재 발생 시 연소·폭발 피해 범위가 넓고 유사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송태철 서장은 산업단지 내 방재실 및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등 취약장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관계자와 안전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예로사항도 정취했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대상별 대형화재 사례 공유 소방안전 관리 운영실태 확인 및 개선사항 지도, 취약장소 현장 확인 및 불안전 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당부, 여름

철 폭염 및 겨울철 대비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 및 관심 제고, 화재 발생 시 신고 및 인명 대피요령 등이다.

김종남기자

마포구, '손씻기로 아동권리 실천' 굿네이버스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

마포구는 지난 8월 11일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와 아동친화도시 마포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마포구와 굿네이버스 서울본부가 아동건강 및 위생 실천을 강조하는 '해피워시 앤 버블(HAPPY WASH & BUBBLE)' 사업 추진에 있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에서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해피워시 앤 버블' 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는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된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보건 위생 실천 및 체험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영상과 홍보물을 보며 전세계 코로나19 감염 상황 및 손씻기의 코로나19 예방효과 등을 익히고, 세균 배양기를 활용해 손 씻기 전후 세균차이를 직접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 스스로 손씻기를 통한 자신의 건강 보호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또한,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제공해 가족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놀이권 향상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는 '해피워시 앤 버블' 교육을 오는 9월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구는 사업 추진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굿네이버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보건위생 온라인 프로그램과 연

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유혜선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장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당연히 두려워하는 기본 권리는 물론이고 '건강권'이 많은 위협을 받고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과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유엔(UN)아

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로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마포구는 지난 2018년 1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친화도 파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기반 조성에 힘써 왔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 3월 마포구의 아동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아동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아동친화누리집'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 4월에는 아동 권리를 독립적으로 대변하는 옵부즈퍼슨 3명을 위촉하는 등 아동친화 정책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학교와 가정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굿네이버스 외에도 학교,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의 권리 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영등포구,지반침하대비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총력

영등포구가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및 주변도로와 MBC부지 공사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안전점검 실시 대상 단지는 대부분 197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준공된 지 50년이 경과해 건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지 내 땅 꺼짐(지하동공)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지 내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보수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구는, 시작 단계에 돌입한 서울시의 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공정의 본격 추진에 앞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각적이고도 심도 깊은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구는 총 16개 여의도 노후아파트 단지 내·외부에 대한 지반함몰 발생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단지 내부, 주변도로 상 지반함몰 발생 여부 및 이력 등을 조사한다.

전문가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구청 관계부서와 토질·기초·지하수 등 민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여의도 노후 아파트 16개 단지과 MBC부지 공사현장 4개소를 돌며 지반함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강구, 안전성 영향 등을 점검한다.

(구)MBC부지 개발 공사장을 포함한 4개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공사장 및 주변도로 점검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외



부 전문가, 안전센터 요원, 현장소장이 함께 지하 수위, 지반 안정성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지반침하와의 연관성, 사전 예방대책 등을 모색한다.

추후 구는 아파트 전수조사, 전문가 합동점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보완·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지하 정밀조사의 실시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반침하" 현상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 차원의 행정·재정적 대응과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신속하고 내실있는 안전점검의 실시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상호 공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성동구, '태극기 아파트 창가에 휘날리며, 광복절 기념 애국심 함양 앞장 선 성동구'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통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드높이기에 앞장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공동주택 한 곳을 선정해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선다.

공동주택 태극기 달기 운동은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회장 유영석)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 아파트를 시범 선정해 태극기 달기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왕십리도산동에 소재한 '텐즈힐 1단지(성동구 무학로 33)'를 선정, 태극기를 달며 순국선열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가정용 태극기 1,400개를 배부하고 계양을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행했던 태극기 흔들기 행사를 대신해 '태극기 삼행시 짓기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 참여자에게는 아파트 내 카페 이용권 등의 경품을 지급하며 비대면 방식의 안전한 행사로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행사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는 국경일1) 전후 집중적으로 '태극기 달기' 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애국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도로, 주요시설 및 공동주택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해 총 9회에 걸쳐 국경일 도로변 가로길 게양 운동 등을 추진, 올해도 도선사거리에서 응봉사거리에 걸친 약 1.3Km 구간 194기의 태극기가 게양된 태극기 상시게양거리를 운영하며 태극기의 오염 및 훼손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국경일과 나라사랑 주간2) 에 따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기게양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태극기 달기 행사를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 역량 결집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송파구, 송송·파파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출전!

송파구는 구의 대표캐릭터 송송, 파파가 전국 캐릭터 선발대회인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참가해 전국 지자체(60개)와 공공기관(41개) 총 101개의 캐릭터와 대상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전국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를 선발하는 대회다.

올해 대회는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캐릭터를 최종 선정하고 총 상금 3,000만원과 함께 홍보 및 후속화 사업 지원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예선 온라인 투표는 8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하며, 우리동네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지역 및 공공부문에 각 2표씩 최대 4개 캐릭터까지 투표 가능하다. 예선을 통과한 지역부문 10개, 공공부문 10개 총 20개의 캐릭터가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구가 지난해 7월 1일 새롭게 선보인 대표캐릭터 '송송·파파'는 지자체 최초로 도시 이름의 한글초성을 형상화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s'은 하트를 이미지화 한 것으로 구민의 행복 한 삶을 나타내며, 'p'은 다리모양으로



로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연결하는 도시를 상징한다.

'송송·파파'는 레트로 컵, 슬라이드 그림책 등 관광기념품과 석촌호수, 송파대교네거리 조형물, 각종 현수막 등 다양한 구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구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표기간 동안 인증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투표 후 네이버 폼으로 투표완료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한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와 캐릭터는 도시의 정체성은 물론 구성원들을 한 데 모으는 힘이 있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송송·파파'가 우승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함께 앞으로 구의 대표 캐릭터로서 활약할 송송 파파에 많은 응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금천구, 2021년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금천구는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구현을 위해 분야별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율시 최초 어르신편의점 '착한 상회로 오세요' 스마트 자전거 보관대 개발·설치사업 △안양천 횡단보도교(금천한내교) 설치 추진사업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와 함께 ON택트한 금천 즐기기 △장애인 주차구역 스마트 관리 시범도입 △골목골목 안전

이 머무는 안심마을 조성 등 17개의 혁신행정 사례가 열띤 경쟁을 벌인다.

평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15명의 평가단이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8월 12일부터 25일까지 금천주민과 금천구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소통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투표를 진행해 10개 사업을 선정한다.

이어 9월 2일 현장평가에서 최종 7건의 우수사례(최우수1, 우수2, 장려4)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여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성/기자

인천시 부평구, 아동학대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부평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소중한 우리 아이와 통하는 부모 되기'를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성장에 대한 이해 ▲성장기 자녀와 소통하는 법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의 이해 등 부모로서 자녀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 부평구청생학습관, 부평구 드림스타트팀이 함께 주관한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양육자와 아동권리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부평구청생학습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2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 차레 더 진행할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양천구, '갈산문화복합시설 명칭 공모'

양천구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갈산문화복합시설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내년 초 준공을 앞둔 가정 '갈산문화복합시설'(신정동 163-8 일원)은 연면적 5,295.88㎡의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설 내부에는 양천문화원 사무실을 비롯해 소공연장, 전시실, 중강당, 강의실로 구성되어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부족했던 갈산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인당 제안건수는 제한하진 않지만, 시상은 1건만 수여되며,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된다. 당선작은 8월 23일 양천구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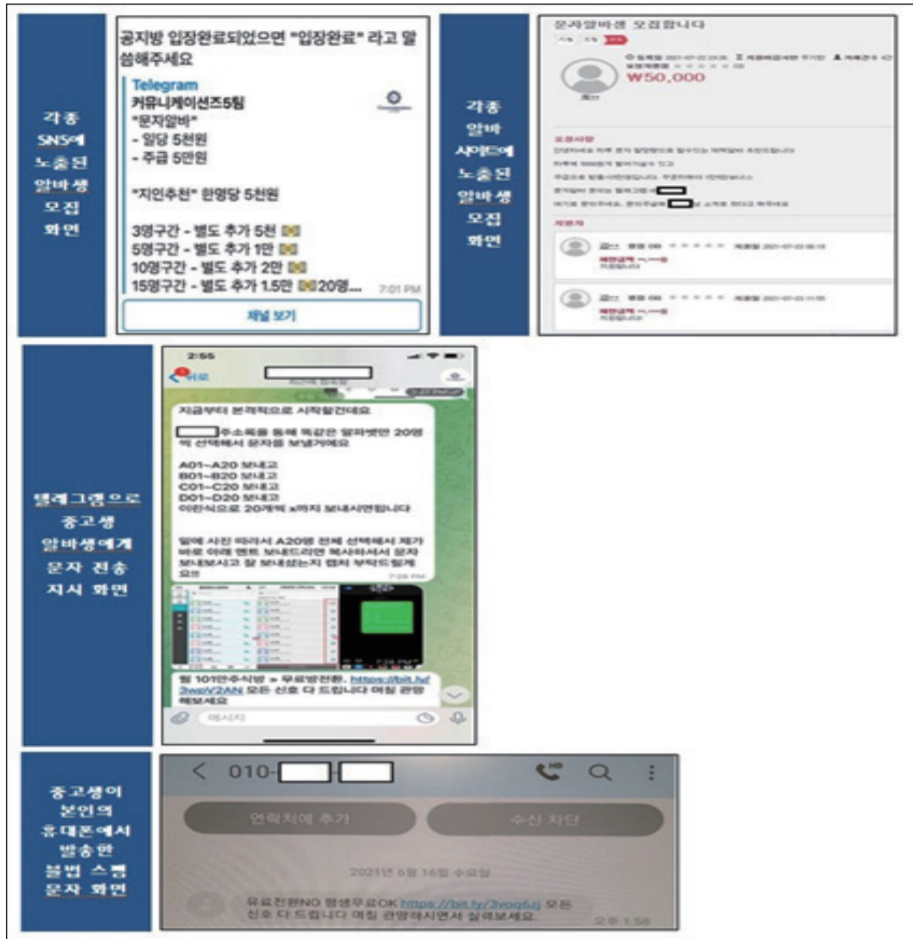
를 통해 발표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상으로 최우수상 10만 원, 우수상 5만 원, 장려상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모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이 될 갈산문화복합시설의 상징성을 표현하면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명칭이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순쉬운 알바로 현혹, 텔레그램 이용해 불법전송 지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 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순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 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송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관악구,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킵보드 견인시행

관악구가 오는 16일부터 도로 보도 위 등에 불법주정차 된 공유 전동 킵보드 견인을 시행한다.

구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전동킵보드 이용률이 높고, 이용 후 보도, 지하철역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킵보드가 많은 편이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킵보드는 신고 시 킵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

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하게 된다.

견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 처리하게 된다.

직접 킵보드를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주정차 공유 킵보드 견인업무를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한다"며 "공유킵보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업체에서 권고하는 주차 위치를 확인하시어 올바른 공유킵보드 주차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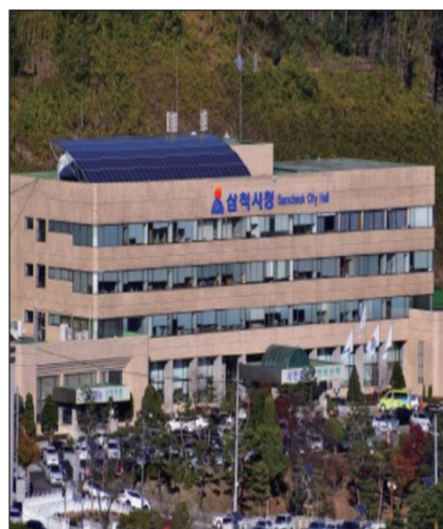
강성원기자



수원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영통구, 유통관련업소 현장점검 강화



삼척시,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집중 단속



삼척시는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어족 자원과 향토어종을 보호하고자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은어 포획금지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척시는 가곡천, 마읍천, 무릉천, 오십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안내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시 내수면 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을 선정해 토·일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산란기 은어 포획 행위 신고 및 계도, 홍보, 유해어업 행위자 관련기안 신고조치 등의 활동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은어포획금지 기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은어 포획, 채취 금지기간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 산란기 은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원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관내 노래연습장·PC방 등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영통구는 지난 4일부터 수원시의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 149개소를 돌며 집합금지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또한,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오락실 등 게임제공업 79개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시설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4일 오후 6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지만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김천시, 양어장 폭염피해 예방 현장점검 실시

3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에 철저한 대비



김천시는 지난 8월 6일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관내 양어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이창재 김천부시장은 어모면에 위치한 양어장을 방문해 폭염대비 현황 점검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양식어류 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재 부시장은 "혹서기 양어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강화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양어장 대표 ○씨는 "시에서 폭염피해발생에 선제적으로 점검 등 대응해줘 감사하다. 최악의 폭염이지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폭염피해대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인명·재산피해에 대비한 TF팀을 운영중이다. 축산분

야 피해발생은 김천시 축산과(054-421-2517)로 신속히 신고하면 된다.

김세기기자

오산시, 직권말소 불법운행차량 현장 적발 검거에 큰 공 세워



오산시는 징수와 스마트징수팀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직권말소 불법운행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인계하며 불법운행차량과 범법자를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12일 전했다.

지난 11일 스마트징수팀이 남촌동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적발한 차량은 지방세 등 교통관련 과태료가 수백만 원 체납된 고급 외제차량으로 운행정지명령신고가 돼있는 직권말소차량이다.

스마트징수팀은 직권말소된 고급 외제차량을 불법체류자가 운행하는 사실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경찰에 인계해 불법운행차량과 범법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다.

오산시와 오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근절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오산시는 고질적인 체납 차량과 소재지가 불명확한 차량의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한 영치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운행차량을 적발하고 체납차량 징수율을 높임으로 시 조세징수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3월에 주행거리 조작한 불법차량을 적발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한 바 있다.

김성복 징수과장은 "이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빅데이터 정보서비스 구축한 이래 불법운행중인 대표 차량을 적발한 사례"라며 "체납차량 영치전담팀이 항상 체납차량과 불법차량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통영시, 여름철 축산분야 폭염피해 예방 강화

가축재해보험 가입 안내 및 여름철 가축 사양 및 위생관리 철저 당부



통영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름철 농·축산업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분야 취약시설 예찰활동 및 현장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 홍보 및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지속적인 환기 실시, 지붕 위 물 뿌려주기, 송풍팬을 가동하여 축사 온도 낮추기, 주기적 물통 청소 및 시원한 물

공급, 비타민·미네랄을 보충이 필요하며,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에 따라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사육시설 및 사육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축산업 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폭염에 의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 사양 및 위생관리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안내 및 축산농가 현장점검 강화 등으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영훈기자

“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다” 광명시 민관협치 의제발굴 토론회 개최



광명시는 10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시민참여커뮤니티 2기 위원 70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5개 분과로 나눠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참여커뮤니티 2기 출범 후 첫 번째 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제 발굴 등 민관협치의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시민이 제안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중 23개의 사업을 선정했으며 그중 시민참여커

민관협치기구인 시민참여커뮤니티 2기 활동 본격 시작

민관이 제안한 사업은 5개 사업이다. 2019년 4월에 민관협치 기구로 출범한 시민참여커뮤니티는 지난 5월 활동공유회를 끝으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지난달 7월에 2기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자치분과, ▲교육문화분과, ▲돌봄복지분과, ▲일자리경제분과, ▲환경에너지분과 5개분과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커뮤니티는 '시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하여 정책 입안부터 집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제 발굴, 협치사업의 실행 및 평가, 사회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구성된 시민참여커뮤니티는 모집인원 60%를 공개모집과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라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범한 시민이 시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의제는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토론회를 통해 시와 시민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며 그 과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시정협치협의회, 실행위원회, 시민참여커뮤니티 등 민관협력 기구를 운영해 시민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민선7기의 주요 시정과제인 시민참여, 자치분권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올해 3월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숙의적 합의 과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순희기자

조광한남양주시장, '별내동 태릉갈비 특화거리' 조성현장방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1일 별내동 불암로 109번길 구간에 조성 예정인 『별내동 태릉갈비 특화 거리』 사업 대상지를 방문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08년 무렵 별내동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점점 쇠퇴해 현재는 소수의 갈비 업체만 살아남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 상인회는 갈비 거리를 살리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에 건의했고, 이후 특화거리 조성이 검토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지역 상인회를 비롯해 마을 주민 41명이 모여 '별내동 태릉갈비촌 특화 거리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역 주민들 역시 특화거리 조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조 시장은 현장에 도착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온 지역 상인회·별내동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불암산로 및 불암로 109번길을 따라 960m에 이르는 사업 구간을 왕복하며 도로 상태와 이용 상황 등을 점검

했다. 조 시장은 “그간 상인회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 읍면동장들과 논의를 해왔는데, 오늘 현장에 나와 보니 구조상 도로 폭이 좁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꽤 많다”라며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주민 합의 등 사회단체장과 상인회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을 살펴 본 소감을 말했다. 이에 별내동의 한 사회단체장은 “주민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업무로 바쁜 시간을 쪼개 이른 아침 시간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주시는 시장님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우선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관 조명 및 조형물 설치 △벽면 미모지 개선 △사업 구간 내 기존 보도 정비 △차도 재포장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과천시, 관문 제2실내체육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과천시, 관문 제2실내체육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과천시는 최근 제2실내체육관(국민체육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해 제2실내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중합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본 설계공모에는 총 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중합건축사사무소 팀의 설계공모(안)에 대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계획과 체육관 기능에 최적화된 친환경 입면 및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계획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했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앞으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디자인 및 평면계획을 확정된 뒤,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내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실내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2실내체육관은 관문체육공원 내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5,433㎡ 규모이다. 유아풀, 다이빙풀에 25m짜리 6레인 등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며 다목적 체육관, 포력인증센터 등의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특히 수영장 내 장애인 입수 경사로 및 장애인 동반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본 체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특별교부세 8억원과,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에 공모해 국비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3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성용기자

고양문화재단, 안진의 작가 개인전 '꽃의 시간'展 개최

고양문화재단은 꽃을 모티브로 내면의 정서를 풀어낸 안진의 작가의 전시 '꽃의 시간 The Time of Flowers'를 8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모한 '2021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꽃을 모티브로 한 안진의 작가의 대표작 50여점과 최근작을 만나볼 수 있으며, 그림과 향기, 소리가 더해진 감각적인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는 어울림미술관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제1전시장의 대형 작품 연작이 눈길을 끈다. 거대한 색채의 조화로 하나의 숲을 이루고, 향기와 소리가 더해지며 시간과 공간을 넘는 감각적 경험을 느낄 수 있다. 제2전시장에서는 교육프로그램으로 'Collage your Nature'이 진행되며, 참가자는 꽃잎과 새, 잎사귀 등의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외에 9월 4일에는 '작가와 대화'도 마련될 예정이다. 안진의 작가에게 “꽃의 시간”은 꽃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닌, 꽃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가 어쩔지 선히해지는 뜻밖의 시간이다. “아예 자연이 되고 싶다”는 작가는 모두가 자연이



되기를 갈구하듯 캔버스 밖으로 터져 나오는 자연을 꽃으로 그려낸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색채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30년 가까이 꽃을 모티브로 한 유려한 채색화를 선보이고 있다. 작품에 주로 석채(石彩)를 사용하는데, 석채는 색이 있는 천연광물성 안료로 빛에 반사되면 반

짝거리며 질감이 도드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안진의 작가는 홍익대 동양화과 교수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이다. 이번 전시는 철저한 방역 속에 무료로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한영기기자

김포시, 발달장애인 등 코로나19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서비스 실시

김포시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19세~50세(1972년~2003년생)발달장애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접종자 사전예약 신청 및 코로나19 접종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종 사전예약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며, 접종일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 까지다. 또한, 차량 이용 희망자는 김포시 생활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김포시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접종 3일 전 전화 예약하면, 왕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접종 취약계층의 차량 이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희기자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6대 유관기관 업무협약'



하남시는 지난 11일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6대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유관기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활동 목적에 대해 공감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하남을 함께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시청 상강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이용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장, 이대형 하남경찰서장, 신홍식 하남소방서장, 남선우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에 따라 기관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 협약사항을 보면 ▲하남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통합적 아동정책을 추진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며 ▲하남시의회는 아동친화적 법체계 마련 및 아동정책 예산 지원에 협력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아동 권리교육, 아동 친화도 조사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하남경찰서는 폭력과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 과 아동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또한 ▲하남소방서는 아동 관련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지부는 아동보호·권리강화 교육 지원과 아동 권리보장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김상호 시장은 “아동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지역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스스로 활동하는 도시, 즉 아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및 예산, 안전한 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와 더불어 청소년교육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도, 각종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등을 통해 아동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약에 함께해 주신 유관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마음껏 역할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하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아동실태조사 등 조성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발판삼아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강호기자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와 협력해 디지털커머스 전문 인력 양성

수원시가 성균관대학교와 협력해 '디지털커머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디지털커머스(전자 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커머스·메타버스(Metaverse)·빅데이터 이론·실전 교육을 하고, 전문가 1:1 멘토링을 진행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다.

메타버스·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성균관대 교수와 관련 분야 현업 전문가로 강사로 나선다. 사업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교육은 8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다.

만 19~34세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또는 수원시 관내 대학 재학·졸업자가 대상이다. 11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청년특화 지원사업) 국비 공모' 선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 지원금 1억 2400만 원, 시비 31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을 투입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디지털커머스 전문 청년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원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신규일자리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전달



의정부시는 8월 10일 농협중앙회 회장실을 방문해 농업발전과 시 지원활동에 힘쓴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촌사회 일손돕기, 취약 농업인 주거개선 및 생필품 지원, 친환경 농업사업 지원 등 농촌사회 발전에 힘써왔을 뿐 아니라, 의정부시 장학회 장학금 기부, 문화예술 분야의 및 체육분야의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의정부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 함께 하는 농협중앙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하남시 김상호 시장, ESG 경영기법 시정 도입 '도시지속가능성 확보'

하남시는 ESG 경영기법을 시정에 본격적으로 도입·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ESG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적 가치(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경영 활동의 중심목표로 두는 것을 말한다.

시는 올해 6월 ESG 개념을 지자체 최초로 평생교육 분야에 도입한 데 이어, 이를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보다 좋은 현실,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드는 하남 ESG'를 비전으로 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 분야별로 시책 사업을 추진, 효율적인 시정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가시적인 사업성과 데이터를 만들 예정이

다.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는 사업 성과 수치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 정보 시민 공유 확대,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조 구축 등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2050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해 10년 단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시민이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다.

김상호 시장은 "기업, 국제기구 등 국내외 모든 참고사례를 검토해 하남시의 맞춤형 ESG 시정을 만들어 낼 것"을 당부했으며, 이에 시는 이달 수

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9월 중 직원 교육을 추진, ESG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어 부서별 ESG 연관사업 발굴 및 분야별 사업체계 확립을 통해 올해 시범적으로 ESG 경영기법 시정 도입을 추진한 뒤, 연간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ESG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이 건강한 환경, 모두가 연대하는 사회적 가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ESG 정책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공간 나무처럼 랜선나들이' 운영

오기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놀이 공간속으로 온 가족 랜선 나들이

오산시는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혜은)가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공간 나무처럼 랜선 나들이'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5월 초평동에 개소한 오산보육타운 내 '놀이공간 나무처럼'은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계에 대한 의미를 놀이를 통해 아동이 쉽게 이해하고 호기심을 자극해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과 예술적인 감각을 고취시키는 놀이 중심 공간이다.

이번 랜선 나들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4단계 시행에 따라 직접 체험이 어려운 오산시민과 아이들을 위해 ▲나무놀이 공간 ▲자연속 놀이 공간 ▲텍스타일 놀이 공간

▲빛과 어둠의 공간 ▲상상놀이 공간 이라는 5가지의 테마로 구성해 8월부터 한 달간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수요일 새로운 테마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김혜은 센터장은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자연 속 '놀이공간 나무처럼'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잠시나마 피로감을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비대면 시대이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랜선 나들이에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 채널에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한 후 채널을 클릭, '놀이공간 나무처럼 랜선 나들이'영상을 누르면 된다.

김남주기자



여주박물관, 온라인 전통문화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 '다종이랑 놀다보니' 개최

여주시 여주박물관에서는 8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마관 로비전 시홀에서 상반기 온라인 전통문화교육 "다종이 인형 여름이야기" 강좌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여주박물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다종이 인형 중급 과정을 개설하여 정성영 강사의 지도 아래 화살의 뱀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였다.

다종이 인형 공예는 우리의 전통 한지를 한 겹 한 겹 붙였다 따리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섬세한 손끝 정성으로 투박함과 서민적 느낌을 넘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작업이다. 수강생들은 지난 4개월간 익살스러운 표정의 다종이 인형에서부터 옥수수 알갱이 한 알까지 전시를 위한 인형과 소품 모두를 직접 제작하였다.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수강생 대부분이 환갑을 훌쩍 넘긴 어르신 입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실로 대단하다고 느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여주박물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의 객체를 넘어 주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여름'을 주제로 제작된 다종이 인형 작품을 감상하며 정겨운 옛 추억을 떠올리고 도란도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란다.

이성윤기자



(재)대구문화재단, 대구컬러풀페스티벌 참여자 모집

대표 콘텐츠 컬러풀 퍼레이드 · 컬러풀 버스킹 각 40여 팀 모집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에 출세제 '2021 대구컬러풀 페스티벌'의 대표 콘텐츠인 '컬러풀 퍼레이드'와 '컬러풀 버스킹'의 참여자를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공연의 주제는 '시민 위로'로 거리예술가 및 단체를 각 40팀씩 선발할 예정이다.

(재)대구문화재단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 '2021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함께할 컬러풀 퍼레이드 및 컬러풀 버스킹 참여자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0월 23일부터 양일간 국제보상으로 일대(서성네거리~종각네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2021 대구컬러풀페스티벌은 'JUMP UP! 거리'위로 시민 '위로'라는 주제로 '거리예술'과 '시민위로'라는 키워드로 시민 퍼레이드, 거리극, 퍼포먼스, 시각예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컬러풀 퍼레이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참여 및 준비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연제가 아닌 비 경연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사전지원금 및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된다. 또한, 퍼레이드 공간도 행렬 구간



과 퍼포먼스 구간으로 분리하여 운영된다. 기존 중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 구간은 행렬 퍼레이드 구간으로 지정하고, 공평네거리부터 종각네거리까지는 퍼포먼스 구간으로 분리하여, 방역 관리 및 관람객의 선택과 집중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컬러풀 퍼레이드는 30인 내외로 구성된 약 800M의 전체구간을 활용한 퍼레이드가 가능한 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퍼레이드 구성 시 총 4회의 구성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500M 행렬 구간(중앙

네거리~공평네거리) 1회를 시작으로 퍼포먼스 구간(공평네거리~종각네거리) 내 90M씩 구분된 총 3개의 구간에서 3회의 퍼포먼스를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퍼포먼스는 4분 내외로 구성하면 된다.

퍼레이드 연출 시 포인트별 퍼포먼스가 아닌 구간 전체를 활용한 연출을 권장하며, 퍼레이드 카, 의상, 가면(마스크)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길 권장한다. 한편, 거리예술제 프로그램인 '컬

러풀 버스킹'은 국제보상기념공원과 2·28기념중앙공원 특별무대에서 거리공연이 가능한 거리예술가(단체)40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야외공연이 가능한 공연예술 분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컬러풀 퍼레이드는 1억5천만 원, 컬러풀 버스킹은 1천7백만 원으로 각 40팀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은 10월 23일~24일 양일간 컬러풀 버스킹은 13시부터 18시까지, 컬러풀 퍼레이드는 16시부터 21시까지 지정된 공간에서 공연을 펼치게 된다.

(재)대구문화재단 이승익 대표이사는 "지난 대구컬러풀페스티벌은 대구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제로 대구의 다채로움을 선보이는 축제였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 예술인과 함께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내고자 한다. 특히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주고 있다. 이에 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컬러풀 퍼레이드와 거리예술제(거리예술·버스킹)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행복달성 디자인아이디어공모 실시

주인이 함께 만드는 문화발전(As-is) 변화혁신(To-be) 프로젝트

행복달성 디자인아이디어공모

모집기간 ~ 2021. 9. 30.(목)까지

주요내용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내 시설물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문화·관광·체육·복지 등 분야별 공모를 실시한다.

신청자격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함 (단체도 가능함)

신청기간 2021. 8. 13.(금) ~ 9. 30.(목)까지

신청방법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팀 (402호)로 신청한다. (신청서, 아이디어, 참가비 20만원 등)

상당금 200만원 (최대)

대상 10팀 (최대)

신청문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팀 (402호) (053-651-3000)

신청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팀 (402호)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양식, 아이디어 작성 방법, 선정 기준 등)

신청서 제출 방법 (신청서, 아이디어, 참가비 20만원 등)

신청서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신청서 접수 장소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팀 402호)

신청서 접수 방법 (신청서 양식, 아이디어 작성 방법, 선정 기준 등)

신청서 접수 방법 (신청서, 아이디어, 참가비 20만원 등)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11일 지역문화·체육시설 및 관광지의 개선점 발굴과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혁신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사회 혁신문화 장려와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감염증 극복 및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동의 집단지성창구로 활용된다.

이번 공모에는 달성군민 및 공단 시설 이용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모 양식을 작성한 후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적극행정·업무혁신, 지역상생·발전, 안전문화 및 윤리·인권경영분야 등으로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해 공단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강순환 이사장은 "누구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와 혁신에 일조할 수 있는 비대면식 참여형 플랫폼 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영/기자

청송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발전 주도

지난해부터 잇따른 공모사업 선정! 나후된 지역발전 견인



청송군이 지난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연이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진보진안지구(총사업비 130억)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청송금곡지구(총사업비 83억)가 도시재생인정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런 성과는 청송군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일찍부터 도시재생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송군은 일찍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도시재생주민대학 운영,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청송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커다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군은 앞으로 청송월막지구 공모를 차근차근 준비해 내년도 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연이은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알찬 사업계획을 구성해낸 결과"라며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 지역의 경제·문화·공동체 등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영주시, 풍기 남원천에 '접히는 다리, 스윙교' 개통

강물이 불어나면 접히는 수해방지용 접히는 교량 설치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 자동으로 접히는 교량, 스윙교가 들어섰다.

11일 영주시에 따르면 풍기인삼축제와 내년 9월 열리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중심지인 남원천에 지난 2월부터 7억원을 투입해 길이 39.5m, 너비 3.5m(3.0m)로 접을 수 있는 수해방지용 스윙교를 개통했다.

남원천 스윙교는 하천 수위가 낮은 평소에는 일반교량처럼 보행용 다리로 활용되지만, 비가 많이 와 잠길 우려가 있을 경우 둔치방향으로 90도 가량 자동으로 접혀 하천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교량은 평소 인도교 기능을 하고 강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 자동 개폐로 들어가지 못해 인명 피해를



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수, 조명등과 같은 조형 시설도 설치해 남원천 경관 개선과 주민·관광객들에게 불거리도 제공하고 있

다. 시는 남원천 둔치가 산책로, 자전거도로,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휴식 공간 등이 밀집돼 주민들의 이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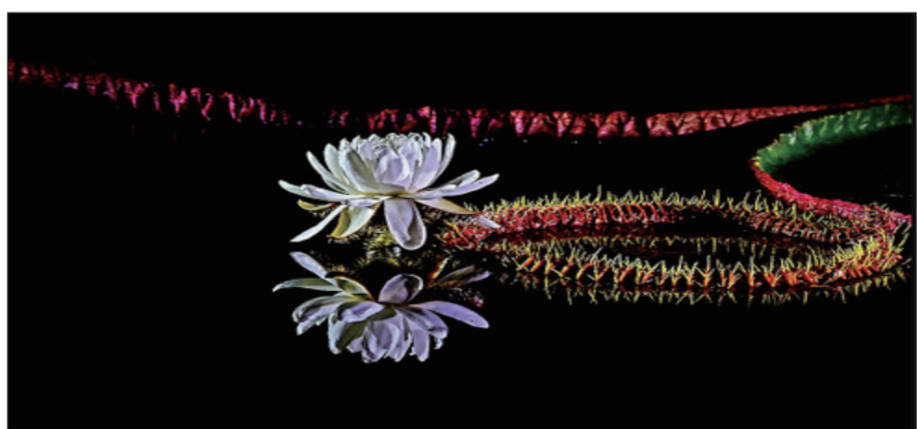
많은 지역임에 따라 스윙교 주변 안전사고를 대비해 CCTV설치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저녁, 처음으로 개폐식 교량이 여닫히는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은 "교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고 지역 명물로 자리잡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육현 영주시장은 "남원천 스윙교는 장마철이면 철거되는 가교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이용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2년 9월에 개최하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행사장 이동편의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에 빅토리아수련 활짝 피었네!



달성군은 송해공원 생태연못에 빅토리아 수련, 호수수련, 열대수련, 물무궁화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내방객과 지역민들에게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바로 아마존강 유역에서 자라는 열대성 수련인 '빅토리아수련'이다. 잎의 지름이 2m까지 자라는 빅토리아수련은 부력이 커서 어린이가 한명이 올라가도 가라앉지 않는다.

또한 빅토리아수련은 7~9월에 꽃이 피며 3일간 피는데 밤에 피고 아침에 진다. 첫날에는 아이보리색의 꽃이 진한 파인애플 향기를 내면서

피고, 다음날 일찍 지고 난 후 2일째 밤에는 왕관 형태의 핑크색 꽃이 된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 물속으로 사라진다. 특히 2일째 핀 꽃은 빅토리아여왕의 왕관과 같다고 하여 그 개화 과정을 '대관식'이라고 한다.

이처럼 여름밤의 빅토리아 연꽃개화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송해공원의 다양한 수생식물을 감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남경영/기자

봉화군, 저소득층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한다

2,800여 명 대상 1인 10만원씩 한시 지원

봉화군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8월 24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생활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지역 내 2,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구대표 1인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없이 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며,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차환, 차상위확인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별도의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김익찬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추

1. 봉화군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포스터).jpg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기계부담 완화와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총 2969명) (21년 7월 기준)

지급일

2021년 8월 24일

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립연세대학교)

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1.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2.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1.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2.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2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1.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2.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3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1.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2.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4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1.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2.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5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1.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2.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6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1.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2.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7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1.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2.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8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1.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2.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3.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4.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5.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6.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7.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8.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99.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100. 봉화군 사회복지센터(국립연세대학교)

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경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체험 프로그램 실시

경주시 드림스타트와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지난 10일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주민건강지원센터 내 9개 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학습과 영양 및 구강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인기가 많았던 간식 만들기 체험 학습은 올바른 영양정보를 알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아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마음방역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

리 프로그램, 건강실습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방학중에도 여행이나 외부활동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뭇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학부모 A씨는 "집 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모처럼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홍정옥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보건소와 아동들이 적극 협조해 줘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경상남도, 불볕더위보다 뜨거운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 열정!

함께 어울리고, 즐기고, 소소한 감동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기

경상남도는 경남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이 경남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 채용·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융화하기 위한 지역공헌 사업을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물줄공공원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설치하였으며, LH 주택 입주인 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 15쌍을 위해 평생 추억할 수 있는 결혼식 전만 일체를 지원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방학때마다 급식 제공 및 협력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남동발전은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성, 사천지역의 바다쓰레기 등 환경개선을 위한 바다사랑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는 어린이·어른·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비석치기 한마당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비석치기 한마당'은 함지네(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잠재적 예비창업인

(대학생, 지역민 등)을 위해 명사, 기업 대표 등을 초청하여 현장에서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무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전기배선 정비, 도배·장판 교체 등 안전적이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

양관세분석소, 한국저작원위원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는 소외계층 말동무해지기, 농촌봉사활동, 김장담그기 행사, 헌혈행사 등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인숙 경남도 서부균형발전국장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 곳곳에 이전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공헌사업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이전공공기관이 지역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및 활동에 우리도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창원교육청, 독립운동가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

중구, 드론 띄워 '열지도' 제작... 폭염 대책에 활용



창원교육지원청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관내 학교에서 소장해오던 일제강점기 기록물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창원교육역사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 기록물은 올해 6월부터 창원지역 독립운동 기록물 수집·활용 TF를 구성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분석한 결과이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관련 기록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 기록물은 진동초등학교, 성호초등학교, 경화초등학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학적부이며, 이를 통해 당시 교육과정과 독립운동가의 유년 시절을 엿볼 수 있다.

1919년 3월 8일 진동면 고현리 장

날의 독립 만세운동을 주동한 백승인 선생(진동초)의 학적부를 보면 1899년 태어난 선생은 1915년 진동보통공립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17살 나이로 보통학교에 늦게 입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글방에서 수학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2학년 재수했다는 기록도 비교란에 쓰여있다.

창원에서 교육노동자의 생활권 보호와 일본 제국주의 교육 타도의 내용으로 선전 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이재성 선생(진동초)의 학적부에는 신분이 '상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보통의 학적부에는 직업만 기재되는데 비해 신분이 기재되어 있어 특이하다.

마산적색교원회를 조직하고 책임

창원교육지원청, 일제강점기 기록물 수집·발굴

자로 활동하다 옥고를 치른 김우분 선생(성호초)의 학적부에는 조행(操行, 태도와 행실)에 대해 기록한 부분이 있다. 선생은 1학년 때는 순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3학년 때는 저항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또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통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적혀있다.

서울 경성전기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를 만들어 군사통신시설을 파괴하고 독립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활동을 계획하다 체포된 김창석 선생(경화초)의 학적부에는 성격이 온순하고 행실이 선량한 학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독립운동가가 졸업한 학교의 일제강점기 기록물을 공개했는데 당시 암울했던 교육의 역사와 학생들의 생활 모습, 일제의 억압과 수탈을 살펴볼 수 있다.

1917년 진동공립보통학교 졸업사진에는 칼을 찬 교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1927년 진동공립보통학교의 졸업사진을 보면 양장차림에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교사와 기모노 차림의 교사가 눈에 띈다. 또한 여학생의 치마에 흰 선을 두른 것이 보이는 데 1920년대 여학생 사이에서는 흰 선을 두른 통치마가 유행이었다고 한다.

1938년 마산공립보통학교 교무실

의 모습을 보면 벽면에 일장기가 걸려있다. 또한 가운데 난방시설이 설치된 점도 눈에 띈다.

1939년 아침조례 사진에는 벽면의 현수막이 눈에 띈다. 인고단련(忍苦鍛鍊, 고통을 인내하여 몸을 튼튼하게 훈련함), 내선일체(內鮮一體, 일본과 조선은 한 몸), 국제명징(國體明徵, 국제를 명백하게 증명함, 천황 중심국가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 표어를 볼 수 있다.

1941년 총력전 사진은 강제 동원을 위해 학생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모습이다. 열강들 사이에 국민교육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총력전이라는 말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국심, 복종심, 전쟁에 나갔을 때의 덕목 등을 가르치려고 했다.

1944년 경화공립국민학교 통지표를 보면 1940년대부터 국민(國民)학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지표에 나와 있는 교과목을 통해 당시 1학년의 교과목을 파악할 수 있다.

정우석 교육장은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울산 중구가 여름철 폭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드론을 띄워 '열지도'를 제작했다.

'열지도'는 지표면의 온도 분포와 변화를 단계에 따라 색으로 구분해 시각화한 지도이다.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열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지표면의 온도를 촬영한 뒤 촬영 데이터 편집, 정합 과정 등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열의 분포를 지도로 구현했다.

이번 열지도 제작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구 변형을 위한 혁신성장 전략인 중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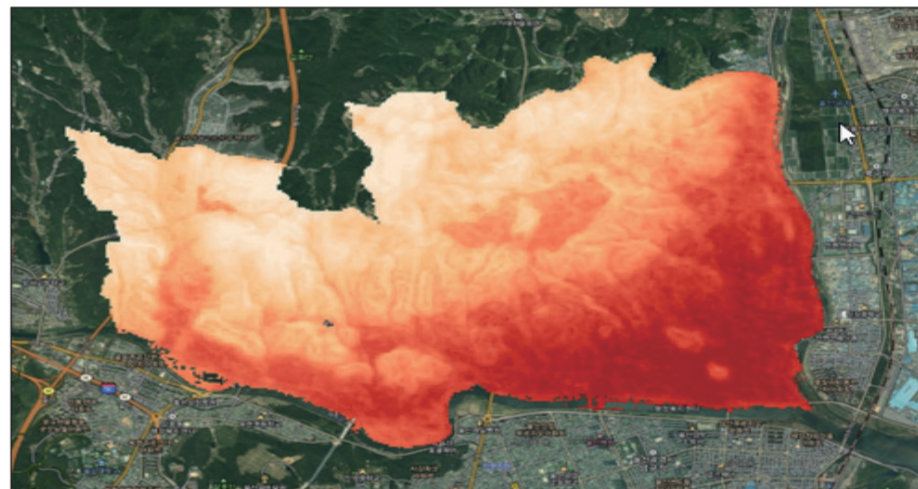
진됐다.

중구청은 열지도와 인구, 건물, 도시계획 같은 행정 데이터를 융합해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그늘막·물안개 분사 장치(쿨링포그) 설치, 도로 살수 등 폭염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열지도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구청 각 실·과·동에도 배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해 혁신적이고 똑똑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함안군, '샤인머스켓' 포도 본격출하 마케팅 실시

진주시, 하모 캐릭터 활용 상품 개발 공모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 시행

60농가 400톤 e-마트 직거래 실시, 소비자 입맛 공략



함안군이 새로운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의 본격 출하기를 맞아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단계 축소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대형유통인, e-마트와 손을 잡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한다.

함안군과 e-마트는 지난 2019년 9농가 40톤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9농가 105톤을 직거래 하였으며, 올해는 60농가 400톤을 출하목표로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왔다.

올해는 직거래를 위해 지난 7월 26일부터 e-마트 담당자가 현지 농가를 방문하여 출하 전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농가별로 납품 시기와 가격을 정해 납품하고 있다. 본격적인 납품은 8월 10일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이며, 납품된 샤인머스켓은 e-마트 전국 22개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함안군과 e-마트는 샤인머스켓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현지 판촉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선채 소비촉진을 위한 '샤인머스켓 라 이브 커머스' 행사를 9월초에

현지 농가에서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생생한 생산현장과 품질의 우수성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함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의 안정적인 판로 마련과 유통단계 축소를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켓 전량을 e-마트와 직거래로 판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맞춤형 품질고급화로 함안 포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하모 캐릭터 활용한 진주시민의 특별한 상품 개발 및 발굴

진주시는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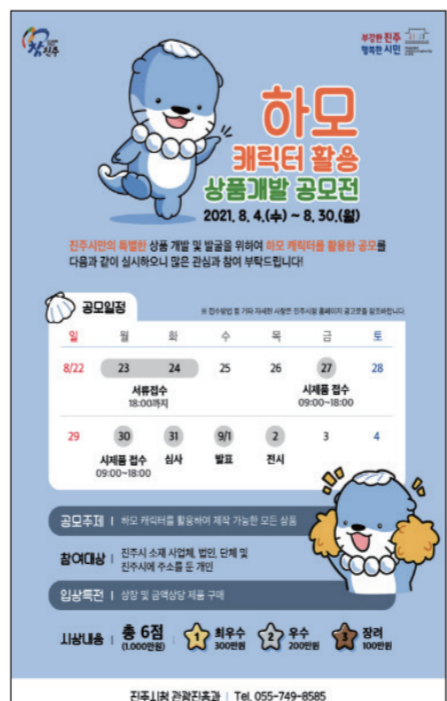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에게 하모 캐릭터를 알리고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진주시민의 특별한 상품 개발 및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진주시 소재 사업체, 법인, 단체 및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작품 수는 개인(업체)당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2점 이하로 제한된다.

서류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며, 시제품은 27일과 30일 이틀 안에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상품성(상품화 가능성, 대량판매 가능성), 시장성(가격의 적정성, 운반 및 보관의 용이성), 디자인 및 품질수준(심미성, 내구성, 완성도)을 기준으로 한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등 총 6점을 선정하여 다음 달 1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수여와 함께 일정 금액 상당의 출품작 구매의 특권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하모 인형뿐만 아니라 하모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 달라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는 등 하모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많아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진주시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부산시 특사경, 인권보호 수사 강화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해 오늘(1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침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죄 수사 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및 수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권보호제도 안내 의무 ▲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 ▲수사관의 회피·체적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 ▲수사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정했다.

또한 ▲피해신고·고소·고발 처리 규정 ▲내사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규정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처리기준 구체화 등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업무의 상세 처리기준과

관련 서식 등을 정하여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특사경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00건의 수사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침 시행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목포시, 섬정책 중심지 발판삼아 세계로 미래로

제2회 섬의 날 기념 '제1회 섬 미래 포럼' 개최 등 섬 미래 가치 논의 이어가

목포시가 섬 정책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발판삼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출발 타이프는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섬진흥원 유치다. 목표는 다른 지역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섬의 미래가치에 집중하면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섬 전문 국가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후 관련 기관, 대학, 단체, 지역 언론사 등과 함께 섬 발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8월 8일)로 제정됐고, 지난 2019년에는 제1회 섬의 날 국가 기념 행사가 목포 삼학도에 개최됐다.

이어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등 목포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주도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섬 진흥원의 법률적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결국 이 같은 끈질긴 노력은 지난 4월 섬진흥원 설립 지역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로써 목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섬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재확인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의 산실 역할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또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을 비롯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사)한국섬학회 등 목포권에 소재하고 있는 섬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이 한국섬진흥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목포는 국내 섬 발전과 정책을 주도하는 클러스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섬진흥원은 오는 9월 중 개원할 예정으로 현재 삼학도 입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다.

섬진흥원 출범을 앞둔 목포는 제2회 섬의 날 행사가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지난 6일 삼학



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사)한국섬재단이 '섬, 미래 국가발전의 동력'을 주제로 '제1회 섬 미래포럼'을 공동 개최해 섬 주민의 삶, 자연과 문화공동체의 공존 등 논의를 다각화했다. 섬과 관련한 시의 다음 목표는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다. 지난 2019년부터 서남해안 섬 벨트를 이루는 목포시와 완도, 진도, 신안군 등 4개 시군이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역공동체 현안을 도출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

시는 섬·관광 관련 국제기구와 연계하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전국 단위의 범국민 유치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섬의 날 제정 20주년인 2038년 국제형 행사 개최, 제정 30주년인 2048년에는 국제 박람회 기구(BIE) 공인 섬 엑스포 유치 등까지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는 대한민국 섬의 수도라는 위상을 재확인하면서 섬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는 도시로 새로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섬의 미래가치 발견과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섬을 매개로 목포가 더욱 발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전남소방, 전국 첫 생활안전순찰대 전면시행

22개 시군 확대... 119 신고 전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가 전국 최초 생활밀착형 소방안전서비스인 '119생활안전순찰대'를 8월부터 22개 시군에서 전면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구조, 구급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대원이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리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각 마을 이장단과 협의회 취약계층 가구를 정하고 직접 방문해 ▲주택화재 안전진단 ▲생활의료서비스 ▲생활 불편 및 위험환경 개선 등 상시 지역 순찰을 통해 소방서비스를 한다.

지난 5월부터 강진·장흥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작,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확대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5개월 빠른 8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는 도민의 큰 호응과 함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



원회 심사에서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등 전남도의회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

전남소방은 22개 시군 전면시행 계획에 따라 22개대 66명으로 '119 생활안전순찰대'를 확대 편성해 매

월 1천700여 취약가구에 생활안전 소방서비스에 나선다.

전남소방본부는 화재를 예방하고 불을 끄는 업무에서 출발해 구급·구조활동으로 업무 범위를 넓힌데 이어 2015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생활안전활동이 추가돼 활동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활동 실적은 연평균 1만 8천677건에 달한다. 이는 3년 평균 구조건수 3만 4천157건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로, 생활안전활동이 소방활동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전남소방본부는 '119생활안전순찰대'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혼자서 하기 힘든 일상 속 어려운 일을 도와 기존 119시스템에서 제공하던 소방서비스를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마재윤 본부장은 "119생활안전순찰대는 119신고 이전에 도민 생활 속으로 소방관이 직접 찾아가 안전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라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남소방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신안군, 간호인력 한 발 앞선 채용으로 코로나19 효과적인 대응



신안군이 간호인력의 한 발 앞선 채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일차의료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지역 노인인구가 많고 의료취약지 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보건의로 인력(간호직, 보건진료직, 공무직 간호사) 50명을 채용하였고,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채용을 확대하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여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아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3T(Tracking, Test, Treat)라는 모범대로 K-방역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의료인력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안군은 전라남도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보건의로 인력을 한 발 앞서 대폭 채용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보건서비스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적절히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신안군에서는 현재, 보건기관 40개소에 209명의 보건의로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지역 확진자는 19명이 발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의료취약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제적으로 보건의로 인력을 대폭으로 채용하여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타지역에 비해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께서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무안군, 관광홍보 UCC 공모전 10.1~11.1 접수

사계절 아름다운 무안의 모습을 담아주세요

2021 무안관광 홍보 UCC 공모전

공모기간: 2021. 1. 21 ~ 11. 1 | 접수기간: 2021. 10. 1 ~ 11. 1

공모대상: 전 국민 누구나(제한없음)

공모주제: 사계절 아름다운 무안의 볼거리

- 사계절 아름다운 볼거리 (자연·문화·관광·스포츠·레저·휴양·농업·수산업 등)
- 무안군을 소개하는 영상
- 무안군을 소개하는 영상 (무안군을 소개하는 영상, 무안군을 소개하는 영상, 무안군을 소개하는 영상)
- 무안군을 소개하는 영상 (무안군을 소개하는 영상, 무안군을 소개하는 영상, 무안군을 소개하는 영상)

작품분량: 3분 내외(5분 이하)

해상도: 1280×720 pixel 이상

출품수령: 1건(영상 1개)

주요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150만원, 장려상 3명 100만원, 입선 4점 30만원

시상방법: 1. 무안군 홈페이지(www.muang.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2. 참가자 등록 및 작품 제출 후 신청서 제출

3. 심사 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입선 4명

4. 시상식 개최(추후 별도 공지)

문의처: 무안군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061-450-5472

무안군은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무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1 무안관광 홍보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내용은 2021년 무안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아름다운 볼거리를 특색 있게 소개하는 3분 내외 홍보 영상 제작이며, 연령과 지역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직접 제작한 영상을 개인 유튜브 또는 SNS에 업로드 후 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기석기자

광산구, 사회적경제 온라인 마케팅 집중 교육컨설팅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집중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대상은 '한다점빵' 입점기업이다.

'한다점빵'은 광산구 사회적경제 기업 공동브랜드 '한다'의 온라인 스토어로 30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 및 마케팅 전략, 온라인 판매 성공스토리 공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이해 등 '한다점빵' 운영실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영세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방법, 상품등록 실습 등 개별기업 컨설팅도 이뤄진다. 또 온라인 매출 상승을 위한 검색어 상위노출,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온라인 광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그간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전국적인 판로개척 및 매출증가 등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Since 2019

한다점빵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

해남군,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창립발기인 총회 개최



해남군은 10일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해남군은 민선7기 문화관광분야의

핵심사업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역할을 결집하고, 지속적·전문적인 정책을 수행할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공모모집을 통해 선임된 이병욱 대표이사를 포함한 2팀 5명으로 출범, 9월 중순 업무를 시작한다.

앞으로 관광 및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수립, 관광마케팅사업 종합 기획, 지역관광 진흥사업, 관광상품 개발, 예술인 지원 등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모바일·개별관광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스마트한 관광환경 조성 및 생활·생태·음식관광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양영욱기자

강진군, '청자 문양에 숨은 고려를 읽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문양으로 고려를 읽다, 용아해초(龍牙薔草) 해석류화(海石榴華)'라는 주제로 8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열리며, 고려시대에 청자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 미술품에 등장하는 문양의 명칭과 의미에 대해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용아해초와 해석류화는 청자에 새겨진 생경한 문양의 이름으로, 도교와 불교의 사상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으며, 각각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상징한다. 전시유물은 고려청자뿐만 아니라 용아해초와 해석류화가 표현된 불

교 미술품도 선보인다. 고려시대 당시 도교를 흡수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청자에 두 문양이 표현된 이이기로 풀려난다.

마국진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미술품 문양의 상징성을 불교미술까지 아울러서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기에 학계에서도 주목할만하며, 관람객들에게는 고려청자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지난 해에도 청자 건축재 특별전 '태평정과 양이정'을 통해 고려왕실 건축물인 태평정, 양이정, 서루 등에서 사용된 청자기 와를 소개한 바 있다.

김장길기자

문양으로 고려를 읽다

용아해초 해석류화

2021. 08. 12. ~ 11. 28.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

남원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가예산 공모 선정

전주시, 고전 통해 미래 찾는 강연 열린다

남원 항공 우주 전문대, 과학관 최초로 '바리스타 로봇' 설치

전북 남원시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사업 국가예산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1억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지자체 과학관 중 최초로 남원항공우주전문대에 서비스용 바리스타 로봇 1대를 설치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바리스타 로봇이란 미세한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 6축 단관절 로봇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한 정확한 비율로 커피의 맛을 내릴 수 있는 전자동 로봇 커피머신이다.

남원항공우주전문대측은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올해 10월에 바리스타 로봇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바리스타 로봇은 4차 산업기술이 집약된 제품이어서 우리나라



로봇기술의 발전을 과학관에서 직접 관람하는 효과와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바리스타 로봇은 코로나가 불러온 '연택트(비대

면)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시만의 선도적인 관광문화시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전문대는 지역관광에 새로운 사례를 만들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바리스타 로봇이 최초로 설치되는 남원항공우주전문대는 백두대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서남권 대표적인 전문과학관시설이다.

지난 4월에 리모델링된 전문대는 최근 '패러글라이딩VR' 체험과 영화속 아이언맨이 되어 하늘을 나는 '플라임VR', '자이로VR' 체험 등을 설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항공우주전문대(063-620-8988)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출/기자

시, 오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전에게 길을 묻다' 강연 운영

함께 고전을 읽으며 소통 비결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주시도서관 '꽃심'과 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고전에게 길을 묻다' 강연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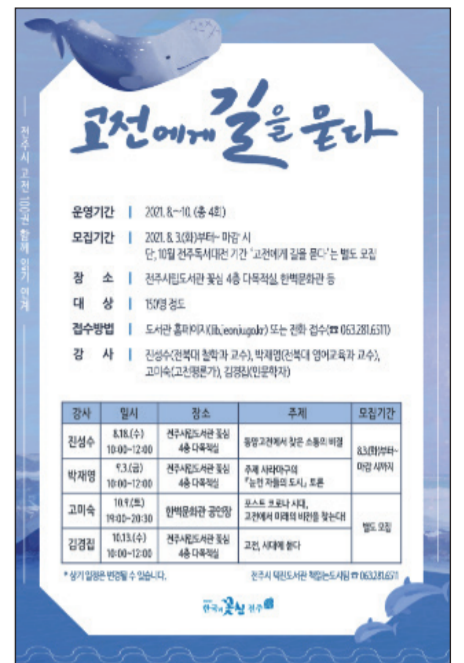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100권의 고전을 5년 동안 함께 읽는 독서운동인 '고전 100권 함께 읽기'와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지혜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

우선 오는 18일에는 진성수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초청돼 '동양고전에서 찾은 소통의 비결'을 주제로 강연의 포문을 연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논어와 주역, 명심보감 등 동양고전의 문장을 직접 읽어보면서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박재영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와 함께 하는 독서토론이 진행된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시는 또 10월 9일에는 고미숙 고전평론가를, 같은 달 13일에는 김경집 인문학자를 각각 초청해 강연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덕



진도서관 책읽는도시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고전 100권을 시민 220명과 함께 읽으며 독서 감상을 작성·인증하는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를 전개하고 있다. 연간 20권 읽기를 달성할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며, 100권 읽기를 달성하면 도서관 명예의 전당에 현판이 걸린다.

전주시 덕진도서관 관계자는 "5년 동안 고전 100권을 함께 읽는 독서운동과 연계된 이번 강좌를 통해 선인들의 높은 통찰과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전북교육청, "스마트 잼버리 함께해요"

고창 서해안복분자주, 호주에 7만달러 수출

13일까지,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 145명 8월 과정활동 온라인으로 운영



전북교육청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8월 과정활동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 14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잼버리 함께해요'를 주제로 각 가정에서 8월 과정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활동을 통해 잼버리 활동 기능을 익혀 잼버리 대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마트 잼버리'는 첨단기술과 열결 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대원뿐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며 활동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게 한다. 8월 온라인 과정활동에 참여하는 제2기 잼버리 JB 국가대표 대원들은 '스마트 잼버리'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2023 세계잼버리 참가 의지를 다지고 경험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나누며 유대감과 문화감수성을 기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김승일/기자

고창 복분자주가 호주 대륙에 보랏빛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0일 관내 복분자주 제조업체인 서해안 복분자주가 호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출품목은 고창서해안복분자주 '선운(도수 15%, 375ml)'으로 최상급 고창산 복분자에 원적외선과 바이오성분이 함유된 황토 토굴에서 빚어낸 술이다. 2003년 대통령 하사주, 2005년 APEC 공식만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행사 건배주 등으로 사용돼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물량은 7만 달러분(8000만 원 상당)이 선적됐으며, 호주 시드니 현지마트와 외식업체 등에 유통될 예정이다.

송지훈 대표는 "2018년부터 호주로 복분자주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고창 복분자주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며 "코로나19에 맞서 온라인 마케팅 집중을 통해 국내 시장 개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어촌식품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복분자 생산



농가, 가공업체 등의 소득 증진을 위해 행정에서도 수출시장 개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익산뿔 신동지구대, 대학교 중심 치안 안전 활동 나서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는 방학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 내부를 비롯 주변의 안전한 치안 환경 유지를 위하여 범죄 우려 요인 여부 점검 등 대학교 중심 순찰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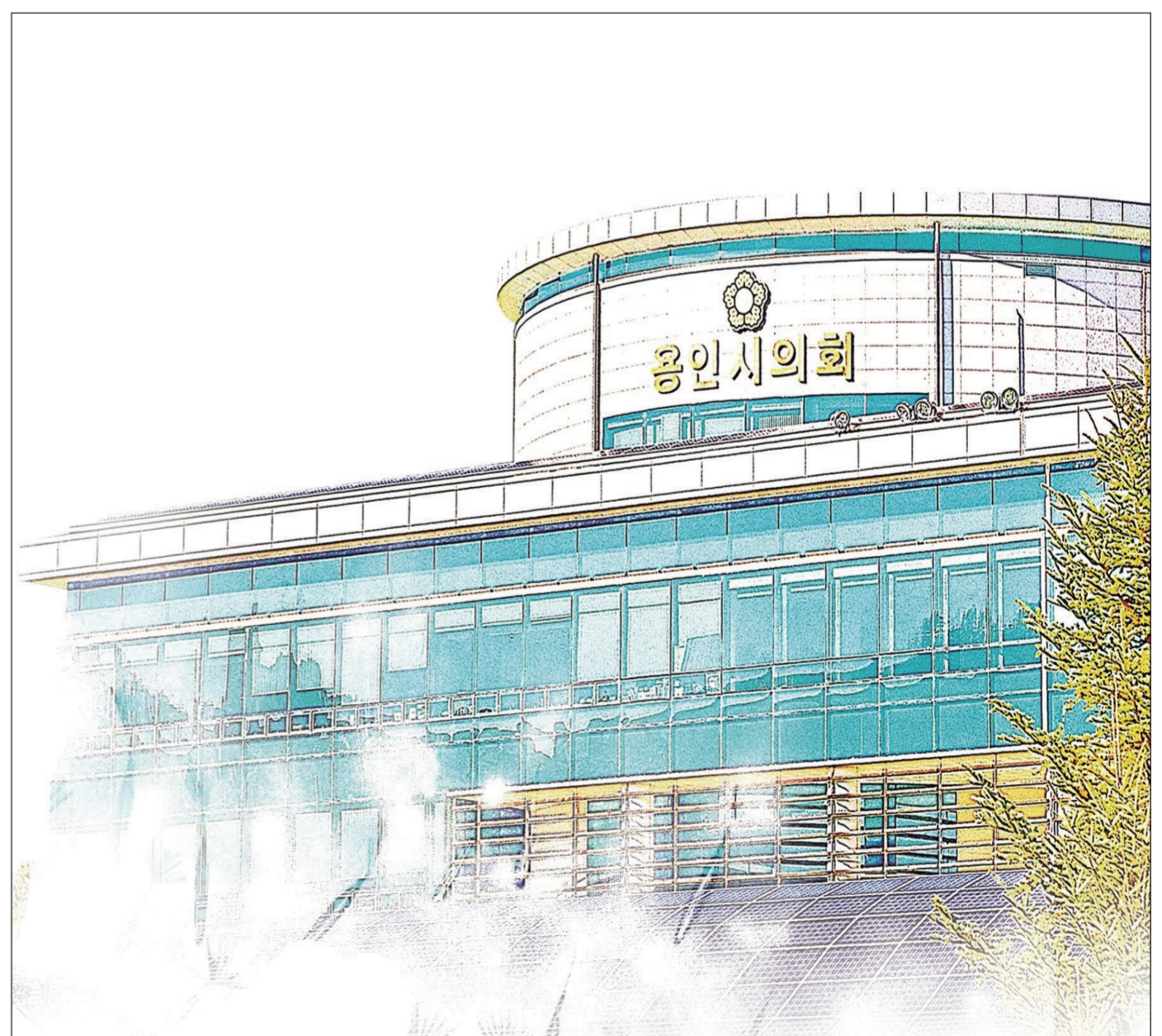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학교 내부와 주변의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해 학교 내부 학생복지시설, 편의점 등 침입 절도나 자전거 절도 등의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장소들 대상으로 가시적 순찰과 탄력순찰을 전개

하여 방학기간 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구대장 송태석 경감은 "방학기간 동안 대학교는 치안적으로 다소 위험우려가 있어 대학교 내외를 주야간 가시적 순찰 순찰을 통해 범죄 위험 요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승현 익산서장은 "대학교와 같이 치안 수요가 유동적인 장소에 대해 시기에 따른 맞춤형 치안 활동으로 안정된 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선수/기자

더 크게 들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당진시 '로봇메타시티' 비전 발표

아산시,외국인근로자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연계 개방형 테스트필드 로봇메타타운 조성 구상

최근 충남도와 함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당진시가 로봇테스트필드 충남 유치와 연계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체험형·개방형 테스트필드 로봇메타타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 간 총사업비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메타 데이터 센터, 테스트 필드 등 서비스 로봇 인증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대상 부지로 약 31만㎡에 이르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연구용지를 제한한 상태로 도와 시는 이중 기본부지와 추가부지 15만2천㎡를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15만8천㎡의 잔여면적을 추가 알파부지로 활용해 농업, 해양,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확대를 위한 복합테스트필드와 더불어 '로봇메타타운'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데이터를 실증하고 인증하는 폐쇄형 테스트필드라면 로봇메타타운은 개방형·체험형 테스트필드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서 실증된 데이터를 실제 생활로 확장되는 연결 공간이다.



당진시가 제안하는 로봇메타타운의 컨셉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시간 초월 공간으로, 가령 로봇메타타운 내 실버존에서는 돌봄 로봇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리조트 형태의 '로봇홀'에서는 로봇이 손님의 일상 주거생활을 서비스한다.

한편 로봇경기장에서는 AI로봇축구를 비롯해 로봇올림픽아드, 사이베슬론 등 국내·외 로봇대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동시에 로봇줄다리기, 로봇사물놀이, 로봇택견, 로봇씨름 등 전통경기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가상의 로봇경기장도 운영한다.

또 로봇메타타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로봇집현전과 로봇서당도 들어서 로봇공학 및 과학인들을 위한 전용 코워킹 공간을 제공하고 로봇 공학과 AI, 전동예절과 전통놀이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한편, 온라인 클라우드를 활용한 로봇메타데이터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입주하는 중소벤처를 위한 물류센터도 설치하는데 로봇메타타운을 찾는 사람들이 체험 후 희망 제품을 앱으로 주문하면 물류로봇과 배송로봇을 통

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로봇메타타운에서 일정기간 검증을 마친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는 국제규격을 인증 받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의 차별되는 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당진시 관계자는 "로봇메타타운은 추가 알파 부지를 활용한 개방형 테스트필드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생활서비스 분야의 로봇에게 다양한 실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로봇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1단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2단계 로봇메타타운에 이어 3단계 전략은 신규 도시개발지구 등 도시 전역 확산이다. 로봇메타시티를 건설해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메타시티 기획 자문단을 발족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 유치계획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13일 부지 선정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김원호/기자



아산시는 최근 외국인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숨어있는 감염을 찾기 위해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의심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무증상감염과 잠복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무료 검사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체와 식당, 다문화센터, 직업소개소 등 530개 업체 5,719명을 대상으로 아산시보건소 의료진 현장 투입과 이윤신 선별진료소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

현장 검진 일정은 ▲8월 12일: 둔포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8월 13일: 음봉면 쌍용보건진료소 ▲8월 17일: 인주면 산업단지 ▲8월 19일: 신창면 득산농공단지며 검진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한다. 8월 28일, 29일 이틀간은 주말 이윤신 선별진료소 외국인 전담 창구도 운영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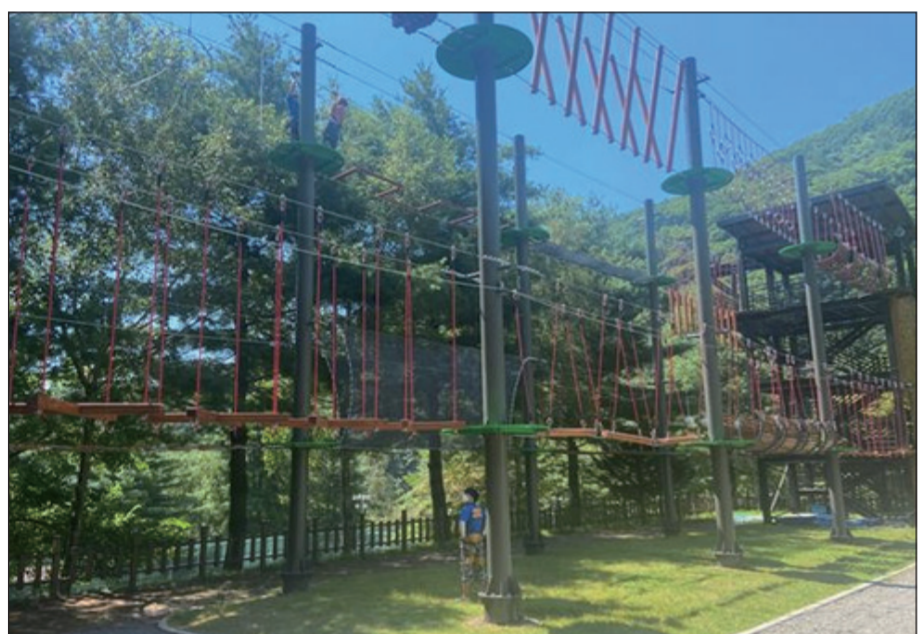
오세현 아산시장은 "무증상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아산시민은 물론 아산시 거주 외국인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선제 검사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라며 "관내 거주 외국인이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업체 대표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와 함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도 8월부터 예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미등록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후 8월 18일까지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 해당일에,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든 대상자가 사전 예약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최재은/기자

홍천군 친환경 레저시설 '포레스트 어드벤처' 새단장

홍천 가리산레포츠 파크의 친환경레저 포레스트 어드벤처 새 단장



홍천군이 친환경 레저시설인 홍천가리산레포츠파크의 '포레스트 어드벤처'를 새롭게 단장, 스틸과 재미로 이용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홍천가리산레포츠파크는 액티비티 체험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입소문을 타고 이용객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친환경 레저시설인 포레스트 어드벤처를 비롯해 969m에 달하는 플라잉 줌과 군(軍) 훈련시스템과 동일한 규격의 GRP시스템이 적용된 서바이벌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만 2,231명이 방문했다.

군은 7월 한 달 간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레스트 어드벤처 놀이시설 코스를 교체했다.

1층 3m, 2층 8m로 구성된 포레스트

트 어드벤처는 우측코스부터 좌측코스까지 총 16개의 스틸 만점 놀이코스와 클라이밍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며, 20여분이 소요된다.

특히 코스마다 난이도를 달리해 남녀노소 누구나 맞춤형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사iting 어드벤처 레포츠이다

모든 장애물 구간에는 안전장치가 설치,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가리산의 수려한 경관을 따라 피톤치드 가득한 산길을 올라가면 레포츠 파크에 도착한다"며 "폭염과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건강놀이터 홍천에서 힐링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가리산레포츠파크는 두촌면 가리산길 426에 위치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요금은 플라잉 줌 3만 5,000원, 어드벤처 1만 8,000원, 서바이벌 1만 8,000원이다.

이용 문의는 가리산레포츠파크로 하면 된다.

정동희/기자

청주시립도서관, 화상으로 만나는 독서친구 운영

청주시립도서관, 화상으로 만나는 독서친구 운영

2021년 9 - 10월

청주시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온라인 북클럽

일시
어린이 독서 친구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5명 운영)
청소년 독서 친구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4명 운영)

대상
어린이 독서 친구 - 초등 3·4·5학년 중(200명) 활동 온라인 토론
청소년 독서 친구 - 중학생

접수
9월 10일(수) 18:00 - 18:30 (신청은 마감시까지)
신청도서는 홈페이지 > 문화행사 > 프로그램 신청

내용
어린이 청소년 연령 상응할 만한 도서 및 토론
연말 독서산책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선착순입니다!

어린이 독서친구

일시	날	주요 도서	세부 내용
1	9월 4일	어린 책장	코로나 19가 가져온 영미권 어린이의 소망
2	9월 11일	행복을 대고 대하는 2020	새로운 세상에서 행복을 대하는 아이는 세상
3	9월 18일	100가지 상상력	100가지 상상력
4	9월 25일	세계는 건네 나에게 맡겨	소중한 만남과 사별이란 무엇인가
5	10월 2일	행복한 아이의 꿈	행복한 아이의 꿈

청소년 독서친구

일시	날	주요 도서	세부 내용
1	9월 11일	어린 책장	1919년 10월 10일
2	9월 18일	어린 책장	1919년 10월 10일
3	9월 25일	어린 책장	1919년 10월 10일
4	10월 2일	어린 책장	1919년 10월 10일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이 코로나19 상황 속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단절된 문화 소통을 위해 온라인 북클럽 '화상에서 ON 독서친구'를 운영한다.

코로나 상상을 고려해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친구는 초등학교 3-5학년 대상 '어린이 독서친구'와 중학생을 위한 '청소년 독서친구' 2개 강좌로 운영된다.

각 강좌는 15명 정원으로 어린이 독서친구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청소년 독서친구는 9월과 10월 기간에 격주로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화상에서 ON 독서친구"는 북멘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러질 예정"이라며 "참여한 학생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대해 탐구해 보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고찰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충남도, 부여 부소산성 앞에 있는 '떠있는 산' 아시나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학과 충청문화' 30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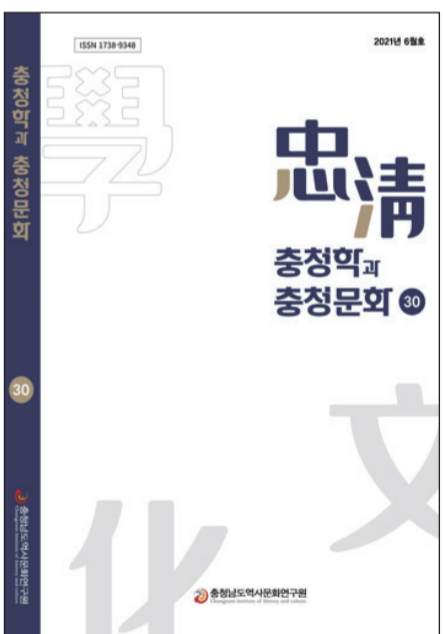
세계유산도시 충남 부여의 백마강변에 '부산(浮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적다. 부소산성 맞은 편이 산은 "청주에서 흥수로 떠내려 온 산"이라는 전설을 갖고 있는데, 고려·조선시대에 배를 타고 부여 명소를 둘러볼 때는 이곳이 답사 1번지로 통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 등을 모아 '충청학과 충청문화' 30집을 최근 발간했다.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는 '백마강 명승으로서의 부여 부산(浮山)-백제고도 부여 다시 읽기(1)' 논문에서 '부산이 어떤 산인가'는 기초적 의문부터 풀어주면서 부산의 문화유산적, 경관적 가치에 주목했다. 특히 도성을 지키는 관방처, 산신각과 불사, 서원이 함께 공존하는 종교적 공간, 그리고 조선조 유학자들의 은사지가 된 점을 통하여 부산이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충청학과 충청문화'는 2002년 창간해 약 20년 동안 270여 편의 연구논문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온 충청지역의 역사전문 학술지이다. 이번 30집에는 '금산 백령성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기획특집 논문 3편, 일반논문 4편 그리고 자료 소개글 1편 등 총 8편이 실렸다.

지난 3월 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금산 백령성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기획특집으로 수록되었다. 백령성은 백제시대 사용된 후 폐기돼, 백제 당시 성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는 흔치 않은 석축성이다. 최병화 백제고도문화재단 부장, 강종원 한밭대학교 교수, 김병희 한성문화재단연구원 등이 최근까지 밝혀진 백령성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학, 고고학, 건축학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백령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전문학자 논문은 백령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별 논문으로는 '고려초기 충주유씨의 중앙 진출과 존재 양상' (오경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대한제국기 음성(陰城) 광주 반씨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범희 충청북도청 학예연구사), '조려가(草廬家) 고문헌(古文獻)의 종류와 사료적 가치' (김향숙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등이 수록되었다.

연구원은 연 2회 발행되는 '충청학과 충청문화'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펴고 있다. 우수 논문 유지 차원에서 충청학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문 학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 심사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조한필 연구원장은 "작년부터 등재후보지 격상을 위해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갖추고 발간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등을 제정했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등재후보지에 올라 중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연구 학술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충청학과 충청문화' 수록 논문은 연구원 홈페이지 '학술지발간' 코너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원호/기자

서산시 생활개선회, 농업인이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및 발효 교육 추진

농촌여성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생활개선서산시연합회는 지난 10일 명가네힐링농장(장동)에서 회원 45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및 발효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회원간 유대를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딪히는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상식 및 행정처리 절차 등(농지법, 지목, 형질변경, 맹지탈출 사례 등)을 전파하여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촌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으며, 제철 농산물인 아로니아청 만들기 실습도 병행하였다.

기양순 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및 교육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회원간 화합이나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은 "팬데믹과 어려운 농업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개선회의 노고에 감사하며 항상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개선회는 11개 읍면동회와 연합회로 구성, 농촌여성 지위향상과 건전한 농촌사회 형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로 특히 5대 과제(▲깨끗한 농촌마을 가꾸기 ▲소중한 우리쌀 지키기 ▲선진농업기술과 이웃사랑 실천 ▲여성농업인의 지위확보 ▲희망농업 공감대 확산)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재은/기자

위클리 이수진, BIAF 홍보대사 선정



위클리 (Weeekly) 리더 이수진이 제23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1)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2020년 위클리 미니 1집 'We are'로 데뷔한 이수진은 JTBC 믹스나인에서 소녀그룹 센터를 맡으며 얼굴을 알렸고, 이후 위클리로 핫데뷔했다. 위클리는 데뷔 후 'We are', 'We can', 'We play' 등의 음반으로 데뷔

곡 'Tag Me (@Me)'를 비롯해 'Zig Zag' 그리고 2021 상반기 신곡 'After School'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바이럴 50 차트 1위, 유튜브 조회 수 1억 회에 육박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K-POP 팬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위클리는 데뷔하자마자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신인 여자 아이돌, 2020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여자 신인상, 2020 아시아 모델 어워드 여자 가수 신인상, 2020 Mnet 아시아 뮤직 어워드 여자 신인상, 2021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신인 여자아이돌상을 휩쓸었다.

8월 4일에는 위클리 여름 여행을 주제로 하는 미니 4집 앨범 'Play Game : Holiday'로 컴백, 타이틀 곡 'Holiday Party'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로 아카데미 수상작 아담 스튜디오 '월레스와 그로밋'을 뽑은 이수진은 BIAF2021 홍보대사로서 9월 기자회견, 10월 영화제 개막작 소개 등 다양하게 활약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영화제 BIAF2021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열린다.

현유주기자

서산시 경제환경국, 하반기 역점사업 언론 브리핑

상권 회복과 친환경 정책에 중점, 352만㎡ 규모 산단 조성

서산시가 1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경제환경국 소관 올 하반기 역점 추진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김인수 경제환경국장은 이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을 비롯해 2개 산단 조성, 대기질 개선 등 친환경 정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굵직굵직한 역점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줄 충남형 배달앱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며, 지난달 말 완공된 원도심 공영주차장도 9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본격 운영한다. 중심상가 지역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스마트기술 시범상가도 조성한다.

특히, 지난 2016년도 발표 당시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하게 나빠진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시는 올해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대 시책과 별도의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준, 서산시의 2020년도 NO₂평균농도는 2016년 대비 33%가 낮아졌고, 작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교하면 37%, 전국 평균과는 13% 낮은 수준이다.

시는 올해 농촌마을 영농폐기물 수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영농 폐기물을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농촌마을 20개소에 시범적으로 마을단위 클린 하우스도 설치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개발방식으로 2027년까지 5,372억원을 투입해 226만㎡ 규모의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계획이다. 환경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대

안사업을 찾지 못했던 지곡일반산업단지도 분양 목적의 민간개발방식으로 2025년까지 1,564억원을 투입해 126만㎡ 규모로 개발한다. 이 두 개의 산단 규모는 모두 352만㎡ 규모다.

뿐만 아니라 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건립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서는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한다.

시는 200억원 규모의 지방상수도 맑은 물 공급시스템 구축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 운산면 개심사와 해미면 일락사 사이에 245ha 규모로 조성되는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수 국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려워진 지역 내수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여름휴가 후 코로나19 선제 검사, 광복절 연휴 집에서 머무르기” 당부

박승원 광명시장은 11일 이른 아침 철산역에서 직원 및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박 시장은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왔을 경우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반드시 받아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델타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광복절 연휴기간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람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 휴가 복귀 시 코로나19 선제 검사’와 ‘광복절 연휴기간 집

에서 머무르기’ 동참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시청 홍보담당관, 안전총괄과, 철산3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유관단체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휴가 다녀온 후에는 코로나19 검사 받기’, ‘광복절 휴가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델타바이러스 확산 위험! 모임·만남은 나중에!’가 써진 안내판을 들고 시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의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위해 구름산 및 충현역사공원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시청 공무원이 숲선수범해 휴가 후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행정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순희기자

청소년이 행복한 용인 ‘용인시청소년수련관 경기도지사상 수상’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21만 용인시청소년 선도·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도전정신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9년 9개월에 걸쳐 전면적인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및 청소년자치기구 2실을 증설하여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이용율을 높였으며, 처인구 지역 청소년들의 전용 시설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청소년육성에 뜻을 가진 지역주민과 기업이 합심하여 처인구 이동읍에 청소년전용공간 ‘청소년들의 아지트’문화공간(북카페, 댄스연습실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참신하고 신선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40여개 프로그램(1,272회)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최근 3년간 13개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용인시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거리 제공 및 청소년 맞춤형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동무대표이사와 유준수 수련관장은 “21만 용인시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각종 청소년활동·복지·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대간·지역간 교류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용인시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최정부기자



용인시 백군기 시장, 산책로 경관 개선 현장 2곳 점검



“주민들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 등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달라” 당부

백군기 용인시장은 4일 수지구 죽전2동 탄천 산책로와 신봉동 정평1교 하부 통행로를 차례로 방문해 점검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으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한 죽전2동 탄천 산책로를 살핀 후, 주민대표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 등 생활 공간과 밀접한 곳의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주 다니

는 곳을 세심히 살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시장은 신봉동 정평1교 하부 통행로를 찾았다.

이곳은 지난 7월에 주민 숙원 생활 밀착형 사업을 통해 기존 벽화를 새 벽화로 교체한 곳으로, 지역 명소인 서봉사의 옛 모습과 서봉사 터에서 출토된 석조불좌상 등을 아트타일 벽화로 담아냈다.

백 시장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벽화로 주민들 자긍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강진군민장학재단,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강진군민장학재단은 강진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2021년 하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발 분야와 대상 인원은 ▲성적우수 분야 36명, ▲북지 분야 16명, ▲다자녀 분야 17명, ▲다문화 분야 5명, ▲한부모·가정위탁 분야 4명, ▲귀농인자녀 분야 3명, ▲특기자 분야 4명, ▲장학학생(특수·늦봄학교) 분야 4명, ▲명문대 분야 6명 등 9개 분야, 최대 95명이다.

지금 액수는 총 1억 2,130만 원으로,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전남대학생 100만 원, 일반대학생 200만 원(관외고졸생자 100만 원, 명문대 분야 300만 원)이며, 특기자 분야는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

등이다.

신청 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진군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성적 우수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강진군청 또는 강진군민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의 장학생 선발계획서를 참고하거나 강진군청 총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진군민장학재단에는 올해 현재까지 1억 9,331만 원의 장학금이 기탁되었으며 172억 4,765만 원의 인재육성기금이 조성되었다.

김장길기자



백두현 고성군수, 도시교통 분야 공사 현장 점검

백두현 고성군수는 8월 11일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송하리 일원 버스터미널 바로 옆 부지에는 공영주차장이 한창 조성 중이며, 총면적 3,126㎡(주차면수 90면)의 규모로 올해 4월에 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공정을 50%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지 내에 택시사업자 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버스터미널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 개설공사는 버스터미널에서 기월사거리 간 기존 2차선을 4차선(L=780m,

B=24.5m)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지난해 6월 착공하였고 2022년 4월에 준공 예정이다.

백 군수는 도시교통 분야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피해가 없도록 근로자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안전하게 시공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고성읍의 관문 격인 터미널 부근의 장기공사로 인하여 주민 및 내방객의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추석 전까지 주차장을 임시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강영훈기자

8월 12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시민과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의견 청취, 지역사회와 소통·이해 제고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본격 추진을 위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8월 12일 오후 14시에 유튜브(비대면) 영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 및 사업계획(건축·전시) 보고, 시민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다.

2,500만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 역사·해양문화 인프라로서 추진되어 온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와 소통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의미가 있다.

설명회는 당초 주민들을 초청한 대면행사로 추진코자 했으나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부득이하게 유튜브(Youtube) 채널을 활용한

가 등의 사전접수를 받아 왔으며, 행사 당일 오전까지 접수된 분들에게는 유튜브 주소로 개별 문자로 전송해 드릴 예정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24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월미도 갑문매립지 일

동안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김중남/기자

원 부지 27,601㎡, 건축면적 17,318㎡,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시설, 교육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수장(收藏) 시설로 구성된다.

전시공간에는 서해안 해운·항만의 변화와 발전사 기록·전시, 다양한 섬의 특성이 담긴 해양민속사관, 영흥도선·대부도선 등 고선박 연구전시관 등이 포함되어 서해안의 장구(長久)한 해양스토리를 담은 연구, 보존, 전시,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앞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뛰어 넘어 명실상부한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이 되려면 정부와 인천시의 노력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사업이 해양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행사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부여군, 세계유산축전 13일 온-오프라인 개막

부여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6주년을 맞이해 '찬란한 유산, AGAIN 백제로(路)'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계유산축전이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부여-공주-익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오는 13일에 부여 정립사지 등 3개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4원 생중계(부여-공주-익산-스튜디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여군은 앞서 지난 6월 서동연꽃축제 개막을 앞두고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추세에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전면 취소를 결정했던 바 있다.

군은 동시 개최를 계획한 3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4개 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자체로서 행사 취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화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마련해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개·폐막식 △백제로 원정대 △백제로 챌린지 △백제로 아트마켓 등이 3개 시·군 공통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있다.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렉처콘서트 △백제 풍류가 △백제풍류방 △백제로 별빛마실 △RPG 고분군탐험 △다같이 백제로 △설치미술 백제의 꿈 등이 운영된다.

정립사지에서 진행되는 전통공연 프로그램 '다같이 백제로(路)'는 행사 기간 중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채널명 '부여군청') 라이브로 생중계된다.

'백제 풍류방'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영감을 받은 5팀이 부여 객사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공연으로 8월 15일 오후 5시와 29일 오후 6시에 사전예약을 통해 모집된 30명과 더불어 진행되며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된다.

여름밤 부소산성 솔바람과 함께하



는 부소산성 탐방 프로그램인 '부소산성 별빛마실'은 축전이 열리는 13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저녁 8시와 9시에 35명씩 사전예약자와 함께 한다.

박정현 군수는 "세계유산축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사전예약을 통한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지만, 이번 축전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백제역사유적과 문화강국 백제가 전하는 숨결을 국민과 더불어 향유하고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지역 연계 및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되며, 부여군은 지난 5월 백제권역 도시를 순회하는 마라톤을 진행하는 등 백제역사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정화/기자

보성군, 다음달 3일부터 제9회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 개최

보성차 30% 특별할인! 9월 3일 ~ 9월 5일까지

녹차수도 보성군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제9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온택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제9회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사전제작과 생중계 등을 통해 온택트 행사로 진행된다.

보성군은 이번 세계차 엑스포를 통해 보성에서 생산한 명품차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수출상담회, 보성차랜선골든벨, 아름다운 보성 힐링콘서트, 세계차 품평대회 등의 행사를 준비해 온 가족이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차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3일 11시를 시작으로 한

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리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인원만 초청해 온택트로 진행된다. 오로라, 설하윤이 초대가수로 참여한다. 또, 개막식 당일 초청 바이어 10개사와 도내 10개 차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해외유력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보성관내 차 업체의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한다.

4일은 보성출신 지역가수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보성힐링콘서트를 개최하여 보성차를 소개하고 작은 콘서트를 열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예정이다.

보성세계차엑스포 보성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는 보성을 대표하는 20여

개 제다업체의 차가 상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온라인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보성차 랜선골든벨과 온라인 스탬프컬렉션에 참여하면 태블릿pc, 자전거, 녹차, 보성 쌀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게 온라인 판로를 마련해 주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힐링의 시간을 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제9회 보성세계차엑스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안/기자



군위 삼국유사캐릭터 친구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첫 도전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삼국유사친구들이 첫 출사표를 던진다!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의 마스코트 '삼국유사친구들'이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예선에 참가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캐릭터들과 매력을 뽐낸다고 밝혔다.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9일부터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예선투표가 진행된다.

예선전은 온라인 투표(50%)와 전문가 심사(50%)로 이루어지며 예선 결과는 8월 20일에 발표되어 총 20개의 캐릭터(지역·공공부분 각 10

개)가 분선 진출작으로 선정된다. 삼국유사친구들은 삼국유사 '단군신화'의 단군, 곰, 호랑이와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대사', 테마파크 조형물로 설치되어있는 '만파식적 해룡', '지철로사자상'을 소재로 하여 총 여섯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단군, 연위, 용삼, 범국, 곰유, 사자의 이름 뒤자리를 하나씩 따오면 '군위 삼국유사' 단어가 완성되어 입장객들의 기억에 남기 쉬운 이름으로 지었다.

장정석 대표이사는 "처음으로 출제되는 삼국유사친구들이 널리 알려져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삼국유사친구들의 성장을 응원해달라"라는 말을 남겼다.

김세기/기자

인천 서구, '드미트리 쉬시킨 피아노 리사이틀 with 토모' 개최

인천서구문화재단이 준비한 더 마스터 시리즈로 '드미트리 쉬시킨 피아노 리사이틀 with 토모'가 오는 14일 17시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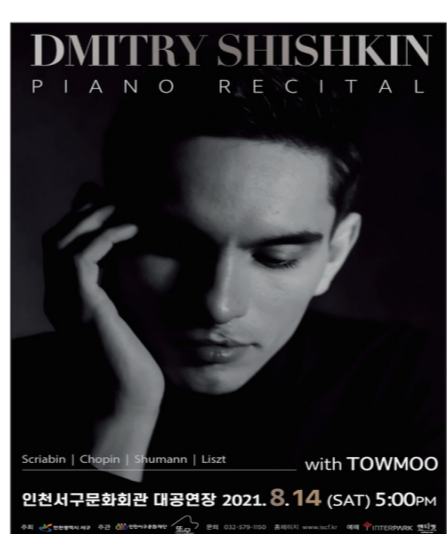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서구문화재단 '더 마스터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상반기에 진행된 임동민, 임동혁 형제의 피아노 듀오 무대를 이어 클래식계의 유망주로 떠오르는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쉬시킨(Dmitry Shishkin)'의 무대다.

작년 첫 솔로 내한 콘서트를 선보이며 전설 매진을 이뤄낸 드미트리 쉬시킨은 2018년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연주자이다. 이후 2019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다시 한번 떠오르는 차세대 피아노 연주자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클래식 부문 최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클래식 전문 유튜브 채널인 '토모'에 출연하며 국내 클래식 팬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첫 솔로 내한 콘서트에 이어 올해 국내에서 두 번째 솔로 리사이틀 무대로 팬들을 만나는 드미트리 쉬시킨은 이번 무대에서 국내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쇼팽의 작품부터 그의 연주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리스트, 스크리빈 등의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음악을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에 아쉬움이 컸을 국내 팬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낭만적인 선율의 곡부터 강렬한 리듬감과 화려한 테크닉이 돋보이는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드미트리 쉬시킨의 무대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김중남/기자



(재)속초문화재단 '우수레퍼토리' 사업 추진

공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전시 '다시... 남향집' 진행

(재)속초문화재단에서는 속초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신선한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해 '우수레퍼토리'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레퍼토리'사업은 공연과 전시로 나누어 진행된다. 8월 14일 15시와 19시 2회 공연하는 입체동화 3D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9월 7일 ~ 9월 12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대한 설치미술전 '다시... 남향집'이 열린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공연은 홀로그램 영상을 기반으로 배우들의 연기만으로는 표현이 힘들었던 동화적 상상력을 구현한 입체동화 3D 뮤지컬이다.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될 이 공연은 온라인 사전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되어 진행된다.

이 공연은 당일 15시에 속초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도 진행된다.

전시행사 '다시... 남향집'은 북한이탈주민 작가와 남한 작가의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설치미술로 승화시킨 작품전이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될 이 전시는 자유와 평화를 찾아 마음의 따뜻한 빛을 소망하며 찾은 남향집을 통해 통일과 진정한 '하나 됨'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연 및 전시장의 소독과 방역, 철저한 출입자 명부 관리, 손소독제 비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입체동화 3D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공연



이 코로나블루로 인해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속초문화재단은 속초시민을 위하여 코로나 상황에 맞는 문화컨텐츠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우수레퍼토리 사업 관련 문의는 속초문화재단 공연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이등원/기자

특허청·식약처 온라인 마스크 광고 등 합동점검 결과 발표



특허청과 식물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웹사이트)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했다.

[특허 등 허위표시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여,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 출원 중인 제

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식물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소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하여 '항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하여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올바른 의약외품 마스크 구매·착용]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

시를 확인한다.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의약외품 마스크 효과]
• 보건용 마스크: 항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한다.

특허청·식물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정환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021년 제2회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공모전 개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석준)는 투자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021년 제2회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패스파인더 공모전'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문 멘토링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연계 공모전으로 4회차를 앞두고 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동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기업 6개사에 7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5개사(△공재로, △두루주, △라이노박스, △내방니방, △하나바이오텍)를 대상으로 밸류업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0개월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인천 및 지방 소재 기업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8월 31일(화)까지 진행되며, 서류와 심사평가 및 발표평가로 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총 1,100만원의 자금과 약 2개월간의 투자 전문 멘토링 및 기업분석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희망 기업에 한해 투자검토를 진행한다.

공모전과 더불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부터 4년간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인천 혁신 포펀드'의 운영기관으로 다양한 뉴딜 분야



에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7월 총 2회에 걸쳐 인천센터 IR(투자유치 사업계획서 발표회) '빅 웨이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김석준 센터장은 "2021 패스파인더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유망기업을 육성하여 센터의 직접 투자 뿐만 아니라 '빅 웨이브' IR(투자유치 사업계획서 발표회) 참가 기회 제공, 후속 투자 유치 지원 등 지속적으로 기업의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책임지고, 인천형 유니콘을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울산·경주·포항시 및 소속 산·학·관 “해오름 동맹, 원전산업 발전 힘 모은다”

11일, 해오름동맹 제2기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공동연구 협약 체결

울산과 경주, 포항 등 해오름동맹 3개 지자체의 산·학·관이 원전산업 발전에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11일 오후 2시 경주 동국대학교 배주년기념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시, 포항시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6개 대학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 한동대, 포스텍, 위덕대, 동국대와 '해오름동맹 제2기 원자력분야 연구개발(R&D)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원경 울산경제부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및 협력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한수원을 비롯한 해오름동맹 3개 도시 지자체와 6개 협력 대학들은 앞으로 3년간 동국대학교를 주관으로 원자력 기술 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소형 모듈 원자로(SMR) 혁신플랫폼 개발 등의 연구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각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연구과제로 발굴해 해오름동맹 지역을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과 지자체 및 협력대학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진행된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원자력 안전성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사업은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을 계기로 지자체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협력플랫폼 구축의 모범사례라 생각한다."며, "지자체, 참여대학과 협력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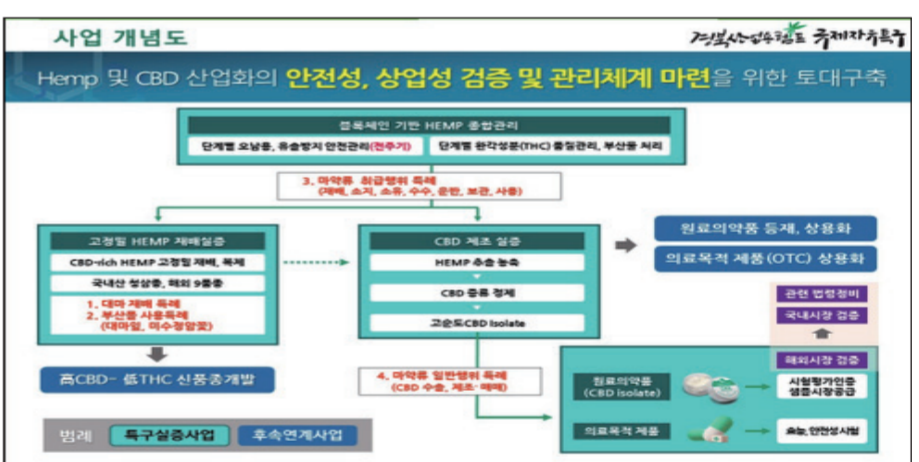
조원경 울산경제부시장은 "원자력

산업을 주도하는 한수원과 해오름동맹이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연구 성과와 원자력 및 원전해체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내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자력 혁신센터' 개소식도 함께 진행됐다. 원자력 혁신센터는 연구개발 공동연구 과제를 총괄 운영·관리하며 사업비는 한수원과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김기현기자

경북도, 국내 최초 고순도 의료목적 CBD 제조·수출 실증 착수



GH, 경기행복주택 화보집 발간 충남도, 해상운임 지원으로 '배 수출 위축' 막는다

경기행복주택 1만호 사업확정 기념으로 경기행복주택 화보집 제작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4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 1인 계

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대상자 대부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투명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대상 및 계좌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내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한다.

최정환기자

전 세계 항만 물류 지연과 선박 운임 상승 등으로 충남산 배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수출비용 지원을 나선다.

도는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하는 충남산 배에 대한 해상운송 부대운임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각각 항만 물류 지연에 따른 선적 공간 부족,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북미지역 수출 선박운임 상승 등으로 도내 신선농산물 중 최대 수출 품목인 배의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천안·아산·논산 등 도내 미국·캐나다 배 수출전문단지 생산 배 선박 수출 전문업체이다.

지원 기간은 선적일 기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로, 12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터미널 취급 수수료, 유류할증료 등 부대운임을 40피트 컨테이너 1개 당 30만 원, 20피트 컨테이너 1개 당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부대운임 지원 외에도 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0.6% 안팎의 저리도 수출농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용자 한도는 법인 2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정낙준 도 농림축산국장은 "선박 운임 상승에 따른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은 소비 감소를 부르고, 이는 결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해상운송 부대운임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정화기자

연도별 도내 배 수출 물량 및 금액은 △2016년 8540톤 2233만 달러 △2017년 8465톤 2277만 달러 △2018년 11247톤 2728만 달러 △2019년 10763톤 2941백만 달러 △2020년 10305톤 3136만 달러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미국수출은 연말까지 3,667톤(40피트 컨테이너 250개) 가량의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박운임 동향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달 말 기준 4193으로 작년 초 대비 4배가량 상승했다.

국내 선박 운임은 부산항 출발 미국 LA 도착 40피트 컨테이너 1개 당 9500달러, 뉴욕은 1만 2000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김기현기자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초로 헴프(HEMP)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마지막 실증과제인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재배 실증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CBD Isolate)을 추출·제조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유한건강생활과 한국콜마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며 추출·정제 시스템 간 교차 비교검증을 통해 국내 CBD 소재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CBD를 이용한 의료목적 제품 개발 및 안전성·유효성을 실증한다.

올해 4월 실증 착수에 들어간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헴프 관리 실증' 2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헴프를 원료의약품 제조·수출과 관리까지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그 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원료의약품(CBD Isolate) 제조·수출 실증'에 필요한 헴프를 생산하기 위해 컨테이너 모듈형·비닐 하우스·판넬 형태의 스마트팜을 구축해 품종 및 발아율을 검증하고, 품종별 생육조건 실증, 조직배양 기술 확립 등 의료용 CBD생산에 적합한 헴프를 재배해 왔다.

그리고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재배된 대마와 그 제조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부터 CBD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불특정 다수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안전한 헴프 운송을 위한 스마트 트럭 시범운행 등 착실한 준비를 해왔다.

경상북도와 중기부 관계자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헴프를 대상으로 실증하는 만큼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은 한국형 헴프 산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를 활용한 원료의약품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선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전통적 농업자원에 머무르던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 검증과 함께 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CBD가 마약으로 분류돼 소수의 연구목적 외에는 추출·제조가 불가능했으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추출·제조 신기술을 철저히 실증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기기자

2021 뮤지컬 '웨딩플레이어' 개막고지 및 캐스팅 공개

썬레드엔블루는 1인 창작뮤지컬 '웨딩플레이어'의 9월 초연을 앞두고, 티저포스터 공개와 동시에 4명의 캐스팅을 발표했다.

작품은 몇 년 전 파혼한 옛 연인의 결혼식 반주를 맡게 된 피아노 연주자라는 엉뚱하면서도 기막힌 설정 아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 '유지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4년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에그린 앙코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돼 쇼케이스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웨딩플레이어'는 국내 최고의 창작진들과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오는 9월 15일,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에서 정식 개막한다.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던 박소정 작가, 이윤진 작사가, 권새미 작곡가는 대본 수정 및 추가 신곡 작업을 통해 더욱 풍성해진 스토리와 넘버를 선사할 예정이다.

평단과 관객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뮤지컬 '빨래'의 추민주 연출과 뮤지컬 '마타하리', '팬텀' 등의 베테랑 안무가 홍세정 감독 역시 쇼케이스에 이



어 초연무대를 함께 이끌어간다. 더불어 이번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뮤지컬 '와일드그레이', '미드나잇' 등 작곡과 피아니스트로 맹활약 중인 음악감독 이범재가 음악감독과 편곡을 맡아 보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주까지 혼자서 무대를 짚 채울 주인공 '유지원' 역에는 배우 정연, 최유하, 이시강, 김지훈이 캐스팅 되었다. 연극 '안벽한 타인', 뮤지컬 '뽕큐베리 스트로베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중형무진 활약하며 안정적인 연기로 사랑 받는 정연 배우는 쇼케이스에 이어 다시 한번 '지원' 역에 참여한다.

마스크 연극 '소라별 이야기', 8월11일 티켓 오픈

어른들에게 부치는 '추억의 편지', 아이들에게 전하는 '낭만동화'

9월 9일부터 26일까지 대학로 공간아울에서 공연되는 마스크 연극 '소라별 이야기'가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에 티켓 오픈했다.

'창작집단 거기가면'의 대표작인 '소라별 이야기'는 2011년 초연 이후 꾸준히 재공연되고 있는 마스크 연극의 스테디셀러 작품이다.

'창작집단 거기가면'은 '마스크 연극'이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개척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다양한 마스크를 통한 새로운 공연 형식은 그들만의 독특한 무대언어이다.

'창작집단 거기가면'은 너분별 마스크 연극 '반호프(Bahnhof)'가 세계적인 연극 축제인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서 공연하며 평단의 호평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연의 가능성까지 열어 보인 바 있다.

마스크 연극 '소라별 이야기'는 2012 독일 Folkwang Physical Theatre Festival 공식 초청작 선정, 2012 포항바다국제공연예술제 프린지 부문 '최우수 작품상' 수상, 2013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최우수배우상'을 수상 등의 성과를 보이며 국내외로 그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작품은 할아버지가 된 동수가 매일 그렇듯 공원에 나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동수 할아버지는 우연히 지나가던 강아지와 장난을 치다가 어릴 적 추억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어린 시절 동네 꼬마 녀석들이었던 못난이 대장, 동수, 이장 아들 창석, 바보 뽕뽕이라 불리는 4총사와 그들의 친구 풍개는 언제나 함께 물러다니며 매일 똑같이 시끌벅적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낸다.

그러다 동네 욕쟁이 할아버지의 손녀인 소라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 만들기가 시작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넘기, 고무줄 놀이, 서리, 별자리 구경 등 이어지는 추억의 놀이들은 관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극 중 대사처럼 짧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기억들이 한 폭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펼쳐진다.

'소라별 이야기'는 독창적 마스크 연극의 진수를 보여준다. 형형색색으로 깨달은 초인적 히어로 '상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대결을 그린 슈퍼 히어로 액션 블록버스터이다.

마스크 연극 '소라별 이야기'는 8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에서 티켓 예매가 가능하다. 8월 25일까지의 예매자에 한 해 조기예매 할인으로 구매 가능하다. 공연 관계자 전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공연 준비에 임하고 있으며, 공연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일 공연 전 극장 내부 방역 및 소독을 진행한다.

또한 거리두기 객석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진표 작성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관객들의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시절에 부치는 '추억의 편지'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순수한 감성을 담은 이야기와 아기자기한 사랑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하는 '낭만동화'처럼 다가간다.

또한 '소라별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움직임과 오브제들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극에 몰입하게 한다.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이야기에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의상과 음악이 곁들여져 만들어내는 특유의 따스한 감성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공감을 이끌어낸다.

구성원들의 공동 창작으로 만들어진 대본에 연출가 백남영을 필두로 마스크 디자인·제작 이수은, 조명 디자인 김광섭, 작곡 김태근, 음악 이한밀, 의상 이수진, 포스터디자인 이재욱, 조명 어시스턴트 김현, 마스크 제작 어시스턴트 백서민 등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스태프들이 참여한다.

동수 역은 최정현과 노재원, 소라 역은 박지수와 이정은, 대장 역은 박현수와 이혜리, 창석 역은 김기택과 사윤일, 뽕뽕 역은 홍상표와 김건우, 풍개 역은 신준우와 안영빈이 더블캐스트로 맡아 출연하며 욕쟁이 역은 이태음이 원캐스트로 맡는다.

마스크 연극 '소라별 이야기'는 8월 1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인터파크에서 티켓 예매가 가능하다. 8월 25일까지의 예매자에 한 해 조기예매 할인으로 구매 가능하다.

공연 관계자 전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공연 준비에 임하고 있으며, 공연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일 공연 전 극장 내부 방역 및 소독을 진행한다.

또한 거리두기 객석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진표 작성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관객들의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뮤지컬 '엑스칼리버' 김준수·카이·서은광·도겸 17일 개막!

아더 4인방이 관전포인트를 공개했다.

뮤지컬 '엑스칼리버'의 개막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월 강서구의 한 연습실에서 촬영된 이번 인터뷰 영상은 아더 역을 맡은 김준수, 카이, 서은광, 도겸이 참여했다. 이들은 추가된 넘버와 1막 엔딩의 변화, 업그레이드된 무술 등 관전 포인트를 소개했다.

먼저 김준수는 이번 시즌 새롭게 추가된 솔로곡 '언제일까'에 대해 "물론 지금은 너무 힘이 들지만, 언젠가는 찬란한 햇살이 비취서 이 모든 걸 이겨낼 거야"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설명하며 "계속되는 전쟁에 패하게 된 마을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부르겠다"며 재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카이는 1막의 마지막 장면이 초연 때와 확연히 달라지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초연에서 아더가 엑스칼리버를 부여 받고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으로 희망차게 1막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아더의 강한 분노가 표출되는 장면에서 1막이 마무리 된다. 인터미션 시간에 2막을 상상해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시즌 새롭게 투입된 서은광은 새로운 넘버 '찬란한 햇살'을 소개했다. 그는 "켈틱풍의 넘버인 '찬란한 햇살'은 굉장히 능숙한 '벤슬렛'과 대조되는 귀여운 '아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짧게 공개된 연습실 현장에서 서은광과 배우들이 스텝을 신나게 밟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았다.마



지막으로 도겸은 무술과 관련해 "이번 시즌 역시 무거운 칼을 들고 하는 액션 신이 가장 어려웠다."

하지만 다양한 화려한 액션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고 싶었다"라며 "지난 '엑스칼리버'와 또 다른, 새롭게 다듬어진 '엑스칼리버'를 보러 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

최재은기자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메인 포스터 공개!

"열개의 힘, 단 하나의 운명" '텐 링즈'를 차지하는 자, MCU의 새로운 시대를 지배한다!

MCU의 세계관을 확장하며 마블 페이즈 4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강력한 NEW 슈퍼 히어로 '상치'의 이야기를 그린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텐 링즈'와 여동생 그리고 슈퍼 히어로로 깨어나는 '상치'의 모습을 암시하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마블의 새로운 슈퍼 히어로 '상치'와 마블의 가장 미스터리한 조직 '텐 링즈'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웬우'를 중심으로 더욱 확장된 세계관을 예고하는 메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먼저 "열개의 힘, 단 하나의 운명"이란 문구와 함께 강력한 슈퍼 히어로의 압도적 위용을 과시하는 '상치'역의 시무 리우가 눈길을 끈다. 어두운 과거이자 두려운 존재인 아버지 '웬우'를 마주할 준비를 마친 듯 비장함이 느껴진다.

오랜 시간 '텐 링즈'의 강력한 힘으로 어둠의 세상을 지배해 왔던 '웬우'역의 양조위 역시 절대적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배우다운 면모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베일에 가려져 있던 '텐 링즈'의 실물이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며, 두 사람이 '텐 링즈'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차원이 다른 익스트림 액션까지 더해져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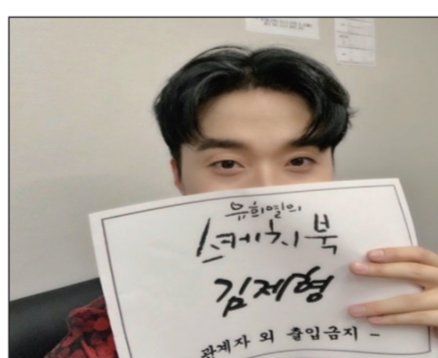
흥미로운 캐릭터들과 함께 날다른 스케일의 다채로운 비주얼 역시 호기심을 자극한다. 거대한 서사에 동참할 아과피나, 양자경을 비롯해 '상



치'의 여동생 '샤링'과 '레이저 피스트'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독보적인

최만식기자

무경계 뮤지션 '김제형', 드디어 유희열 만나다!



무경계 뮤지션 '심어송라이터 김제형이 드디어 유희열과 만난다.

김제형은 오는 13일 방송되는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한다. 이날 김제형은 지난 8월 발표한 신곡 '중독' 첫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2021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 부문 후보에 올랐던 곡 '실과담'도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희열이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가사가 흥미로웠다"며 김제형의 음악을 극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던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제형이 신곡 '중독'을 발표한 후 소화하는 첫 번째 라이브 무대인 만큼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역시 이번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이 좋은 선물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제형은 지난 8월 오후 6시 데뷔 후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중독'을 발표했다. 좋아하는 감정에 대한 오랜 고찰을 통해 탄생한 김제형의 자작곡이자, 전자음과 밴드 사운드다 어우러진 빠른 템포의 댄스곡이다.

현유주기자

'미스트롯2' 임서원! 톱 키즈모델로 자리매김!

'미스트롯2' 임서원이 특유의 긍정 에너지에 힘입어 '대세 키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임서원은 최근 구몬학습의 AI 학습지 '스마트구몬' 모델로 발탁되며 키즈 콘텐츠 대표로 얼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스트롯2'에서 깜짝 발랄한 비주얼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해 '트롯 공주'라는 애칭을 얻은 임서원은 이번 광고 영상 및 화보에서도 사랑스러운 눈웃음과 애타운 표정으로 보는 이들을 '엄마 미소' 짓게 만들었다.

임서원은 다양한 음악 방송을 비롯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대한외국인', '뽕송아학당' 등 다양한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특유의 넘치는 끼와 매력을 인정받아 톱 키즈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임서원이 교육 콘텐츠를 비롯해 방송,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 채



널을 통해 대중을 만나며 차세대 스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편 '미스트롯2'에서 아이돌 비주얼과 훌륭한 실력으로 스타성을 입증한 임서원은 지난 4월 첫 데뷔 싱글 '어깨춤'을 발매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걸그룹 센터상', '완성형 비주얼', '트롯 공주' 등 많은 수식어를 낚으며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재은기자